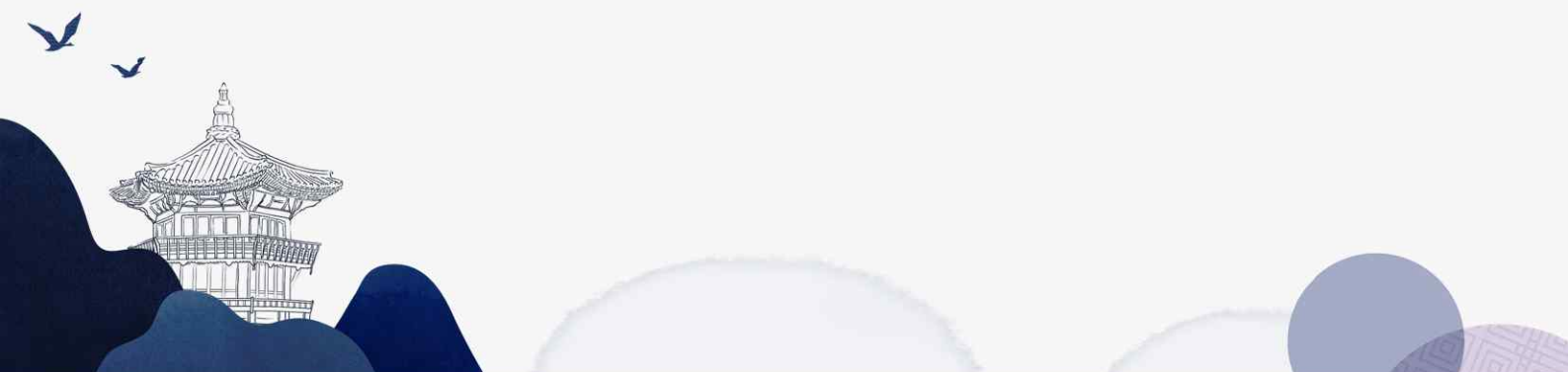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3
4	讲义	50
5	퀴즈	69
6	토론	73
7	자료	75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

학습목표

-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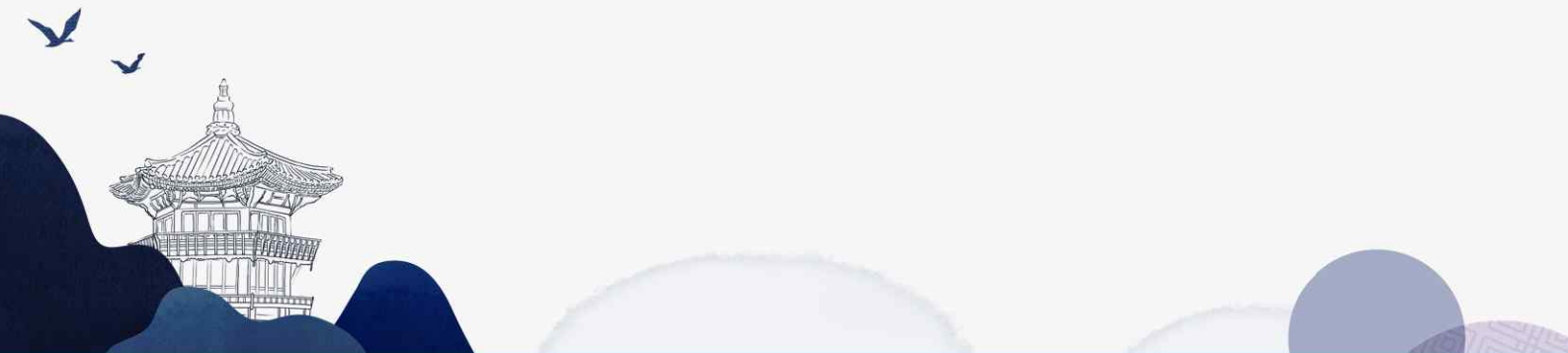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6**

주차

『연병지남』 읽기**6-1****「거기보대오규식」 설명**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연병지남』의 강의를 맡은 노영구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섯 번째 강의로 ‘연병지남 읽기’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연병지남』의 간행 배경과 체재,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이 책을 쓴 조선 중기 병학자이자 성리학자인 한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의 병서인 『연병지남』을 접하였지만, 그 책의 간행에는 임진왜란 이후 중국의 병서 도입, 조선의 병학 발전과 함께 북방 여진의 기병을 막기 위한 조선의 다양한 노력의 일단이 녹아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책이 군사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조선 후기의 성곽 방어 중심의 소극적인 방어전략과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은 『연병지남』의 책 한 권에도 이처럼 많은 역사적 배경과 내용이 담겨 있음을 보며, 언제나 아무리 작은 하나의 자료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연병지남』의 주요한 내용을 읽으며 구체적인 내용 파악과 그 의미를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보았듯이 연병지남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보대오규식(車騎步隊伍規式)」, 「거기보합조소절목(車騎步合操小節目)」, 「거기보대조절목(車騎步大操節目)」, 「병거제(兵車制)」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거기보대오규식(車騎步隊伍規式)」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거기보대오규식」은 한 전차[車] 부대를 지휘하는 거정(車正)의 역할, 총수(銃手), 살수(殺手), 궁수(弓手), 마병(馬兵) 각 12명씩으로 이루어진 한 대(隊)의 편성과 함께, 대오를 편성할 때 전차를 중심으로 하여 각 병종의 병사들이 서는 위치 및 여러 병사들의 구체적인 전투시 역할 및 행동 요령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정(車正)은 전차 1량과 이에 소속된 군사의 하급 지휘관입니다. 전차 1량과 군사 36명, 즉 3개의 대(隊)가 모여 하나의 기(旗)를 이루면 기총이 거정이 되고, 전차 1량과 군사 12명이 모여 하나의 대를 이루면 대장이 거정이 됩니다. 먼저 조총병 10명으로 이루어진 기본 단위인 총수대(銃手隊)의 편성과 전투시 각 병사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연병지남』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총수(銃手) 한 대(隊) 중 8명은 수레 뒤에 서서 적군이 멀리 있을 때는 조총을 사격하고, 적군이 가까이 접근하면 4명씩 두 번(番)으로 나누어 한 번의 4명은 수레를 밀고, 다른 한 번의 4명은 모두 조총을 받아 든다. 타공(舵工) 2명은 수레의 두 바퀴 옆에 나누어 서서 적군이 멀리 있을 때는 총수 8명과 함께 나와 조총을 사격하고, 적군이 가까이 있으면 자신의 조총을 한 번의 군사에게 건네주고 각각 편두대봉(扁頭大棒)을 들고 바퀴를 호위하며 나아간다. 만일 구덩이에 빠지면 힘을 다하여 메고 나오고 적군이 가까우면 곤봉으로 친다. 화병 한 명은 거마작(拒馬柵)을 들고서 두 수레 사이에서 수레를 따라 나오며 물러난다.”

즉 총수대는 대장과 화병 각 1명, (조)총수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전차 1량과 총수 한 대(隊)로 이루어진 전투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총수 10명 중 2명을 수레를 운용하는 타공의 일을 겸직하게 합니다. 적군이 멀리 있으면 조총수 10명이 함께 나와서 조총을 계속하여 사격합니다.

조총의 연속 사격은 2명씩 앞으로 차례로 나와 사격하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즉 5차로 나뉘어 연속사격하는 방식입니다. 조총의 사격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가까이 오면 조총수 10명 중 8명을 두 개의 번(番)으로 나누어 한 번의 4명은 자신의 조총을 옆 번의 4명에게 건네주고서 전차를 밀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머지 2명은 전차를 조종하는 타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조총을 옆의 조총수에게 건네주고 앞부분이 납작한 형태의 칼날을 매단 곤봉인 편두대봉(扁頭大棒)을 지니고서 전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퀴를 지키며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는 중 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비합니다.

다음은 전차와 함께 근접 전투를 행하는 살수로 구성된 살수대의 편성과 근접 전투시 각 병사들의 구체적인 전투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수(殺手) 한 대는 등패수(籐牌手) 2명이 제1쌍이 되고 낭선수(狼筵手) 2명이 제2쌍이 되고 도곤수(刀棍手) 두 쌍 4명이 그다음에 서고, 파수(鈚手) 한 쌍 2명이 가장 뒤에 선다. 살수 한 대를 나누어 양의(兩儀)를 만들고 수례의 양옆에 가까이 붙어서 등패수와 낭선수 한 명씩 한 쌍이 되어 앞에 서고, 도곤수 한 쌍 2명은 다음에 서고, 파수 1명은 가운데 뒤쪽에 선다. 적군이 가까우면 낭선수는 적군의 말을 막으며 창을 가로대며, 등패수는 칼을 지니고 말의 발을 베며, 도곤수는 혹은 말의 머리를 때리거나 혹은 말의 배를 찌르며, 파수는 적군의 얼굴을 찌른다.”

살수는 근접전 군사로서 『기효신서』에 처음으로 그 명칭과 관련 제도가 나옵니다. 『기효신서』에서는 살수 한 대 12명 중 대장과 화병 각 1명을 제외하고 10명의 군사 중 가장 앞의 2명은 등패수(籐牌手), 다음 2명은 낭선수(狼筵手), 그다음 4명은 장창수(長槍手), 그리고 마지막 2명은 당파수(鎗鈚手)로 편성하고 등패수가 가장 앞에 있고 차례대로 서서 2열 종대로 전투 대형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살수대의 기본 전투 대형은 2열 종대 형태의 원앙대(鴛鴦隊)입니다. 원앙대는 가장 앞의 중앙에 대장이 서고, 2열 종대로 등패수, 낭선수, 장창수, 당파수의 순으로 배치하며 가장 뒤에 화병이 따르게 됩니다. 원앙대라는 명칭은 암수간에 사이가 좋아 항상 같이 나란히 다니는 원앙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연병지남』의 살수대 편성은 그 원형인 『기효신서』나 『연병실기』와는 다소 다릅니다. 살수대에서 등패수, 낭선수, 당파수는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고 서는 위치도 같으나, 장창수 4명 대신 새로운 살수 병종인 도곤수 4명의 존재가 보이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도곤수는 협도곤(夾刀棍)을 장비한 군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시다만 협도곤은 칼날의 길이 5촌, 무게 4냥, 자루의 길이 7척, 약 1.4미터 정도 되는 다소 긴 칼날을 붙인 짧은 창(槍)의 일종으로, 보병이 기병에 대항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던 단병기였습니다. 북방 여진 기병이 일제히 돌격할 경우, 장창과 같이 3m에 달하는 긴 단병기는 상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단점으로 기병을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대봉이나 칼날이 달린 짧은 창인 협도곤은 길이는 짧지만 대신 운용하기 편리하고 잘 부러지지 않아 기병을 저지하기에 용이하였습니다. 협도곤을 장비한 보병이 도곤수입니다만 적 기병과 대적할 때는 먼저 적의 말을 협도곤의 칼날로 찔러 기병을 낙마시키고 나서 칼로 기병을 벨 수 있었으므로 전투 현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였습니다.



한교는 『연병지남』의 살수대를 『기효신서』, 『연병실기』와는 달리 장창수 4명을 대신해 협도곤을 지닌 4명의 도곤수를 편성하여 기병에 대항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창수를 대신하여 편성된 도곤수 4명의 존재를 통해 『연병지남』이 북방의 기병에 대항하기 위한 전술을 담은 병서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등패는 원앙대의 가장 앞에 서는 등패수가 가진 등나무로 만든 가볍고 견고한 원형 방패입니다. 등패는 오래되고 거친 등나무 줄기 중 손가락 크기만한 것을 재료로 사용하여 둥글게 말아 대껍질 등으로 촘촘히 싸서 고정시키고, 중심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안쪽은 비워 두어 여러 개의 화살이 날아 들어와도 손과 팔이 다치지 않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등패의 중앙 돌기 부분에는 귀두(鬼頭)라 하여 귀신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등패는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 등나무가 많이 자라므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등패수는 요도 이외에 표창(鏢槍)도 같이 휴대하여 전투가 시작되면, 등패를 쥔 왼팔에 요도를 걸어놓고 오른손으로 표창을 던져 적군을 공격한 이후 방패를 들고 요도를 휘두르며 적군을 공격합니다.

낭선은 가지가 달린 대나무의 앞에 창날을 달아 만든 창 의 일종으로 척계광이 제식 병기로 채택하면서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낭선은 대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 창 자루를 회전하면 날아오는 화살을 튕겨낼 수 있어 방어와 공격을 겸할 수 있는 독특한 무기입니다.

낭선수는 방패수 뒤에 2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낭선의 길이는 1장 5척, 약 3m이며 무게는 7근으로 대나무 낭선과 철 낭선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길어 체력이 좋은 자를 낭선수로 선발하였습니다.

가장 뒤에서 당파수가 쓰는 당파는 세 개의 창날이 달린 창 의 일종으로, 길이는 7척 6촌, 무게는 5근으로서 가운데 창날이 좌우의 창날보다 2촌 정도 높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당파는 화전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평평한 좌우의 창날 사이에 화전을 걸어 불을 당겨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갈래의 창날을 가진 당파는 왜구의 칼날을 걸어 넘기거나, 달려오는 북방 기병을 찔러 쓰러뜨리는데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활과 화살인 궁시(弓矢)를 다루는 궁수대는 이 책의 주요 참고가 되었던 『기효신서』나 『연병실기』에는 보이지 않는 병종입니다. 다음은 궁수대의 전투 모습입니다.



“궁수(弓手) 한 대는 적군이 50보 내에 들어오면 화살을 쏜다. 적군이 가까이 오면, 대를 둘로 나누어 양의(兩儀)를 만들고 살수(殺手)를 쫓아 전투를 돕는다. 모두 장도(長刀)를 차고서 화살이 다하여 혈전(血戰)을 벌이는 것에 대비한다.”

적군이 100보, 즉 120m 이내에 들어오면 앞서 보았듯이 조총을 사격하다가, 50보, 약 60m 내에 들어오면 궁수도 화살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한 보는 1.2m 정도입니다. 적군이 더 가까이 접근하면 살수가 전차의 좌우 양옆에 서고 그 뒤에 궁수도 살수를 도와 장도를 가지고 근접전을 하게 됩니다. 그 진형은 양의진을 펴게 되는데 양의진이란 2열 종대의 원양진을 5명씩 두 오(伍)로 나누어 만드는 진입니다.

이때 총수들은 전차를 앞으로 밀면서 전진하게 됩니다. 궁시는 조선의 전통적인 장기로서 16세기 중반 일본에 신형 화승총인 조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각궁과 편전 등 우수한 궁시를 가진 조선이 전술적으로 일본의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대해 조선의 우월한 궁시 능력이 상쇄됨에 따라, 전쟁 기간 중 조선은 포수와 살수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593년 선조 26년 말 창설된 훈련도감의 경우, 최초에는 조총병인 포수와 근접전 군사인 살수만으로 편성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궁시를 다루는 사수(射手)도 편입되었는데, 이른바 삼수병(三手兵) 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사수의 비중은 차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갑옷으로 방호된 여진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위력이 다소 약한 궁시보다는 관통력이 높은 조총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조총은 궁시에 비해 발사속도가 느려서 한 차례 사격 이후에는 곧바로 적 기병과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적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고 조총 장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통력은 다소 낮지만, 발사속도가 빠른 궁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궁시를 사격하는 궁수 혹은 사수의 전술적 중요성은 여전히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병인 마병대의 전투 모습을 보인 자료입니다.



“마병(馬兵) 한 대는 적이 멀리 있으면 말에서 내려 삼혈총(三穴銃)을 쏘거나 혹은 화살을 쏜다. 적이 가까이 오면 말에 올라 나누어 좌·우익(左右翼)이 되어 원앙진으로 달려 나가는데 혹은 편곤을, 혹은 장도를, 혹은 언월도를, 혹은 쌍도(雙刀)를, 혹은 구창을 써서 함성을 지르면 전투를 한다. 혹은馬上에서 삼혈총을 돌려가며 사격하되 양의진과 삼재진으로 때에 맞게 합변(合變)하라.”

이 내용을 통해 마병은 적군이 멀리 있으면 말에서 내려 삼혈총이나 궁시를 사격하고, 적군이 가까이 접근하면 말에 올라 좌, 우익의 두 제대로 나누어 2열 종대 형태인 원앙진의 형태로 달려 나가서 편곤, 장도, 쌍도, 언월도, 구창 등으로 적과 근접전을 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접전을 행하지 않고 적과 다소 떨어져서 삼혈총을 돌려가며 연달아 사격하며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 시간에서도 소개하였지만 삼혈총은 일명 삼안총(三眼銃)으로 3개의 짧은 총신이 있고 뒤에 손잡이용 나무를 끼운 형태의 소형 화기로서, 3개의 총신에 탄환을 장전하고 차례로 심지에 불을 붙여 사격할 수 있는 휴대용 화기였습니다.

휴대가 간편하여 주로 기병이 사용하였으나, 총신이 짧아 관통력이 낮았으므로 조선 후기에는 전투용보다는 신호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병은 기동성이 높았으므로 원앙진으로 달려나가되 상황에 따라 양의진 혹은 삼재진을 펼치기도 하였는데 삼재진은(三才陣)은 한 대를 세 개의 작은 대로 나누고 좌우로 벌려 적을 공격하는 진형입니다.

마병은 적과 근접전 시에는 편곤 등 자신이 가진 여러 종류의 단병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지난 강의에서 언급한 『무예제보번역속집』에 관련된 무예가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기보대오규식」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기보합조소절목」의 체재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2

「거기보합조소절목」설명

지난 시간에는 「거기보대오규식」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기보합조소절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보대오규식」이 포수대 등 각 대(隊)별 전투방식을 서술하였다면, 「거기보합조소절목」은 전차, 기병, 보병을 통합하여 훈련하는 즉 합조(合操)하는 작은 절차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군사 훈련을 시작하기 전 기병, 보병, 마병 등의 각 병종 군사들은 무기를 지니고 도열하고, 훈련을 총괄하는 중군(中軍)은 총 대장인 주장(主將)에게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한 이후 척후병을 내어 적의 동정을 살핍니다. 적군이 출현하였다는 경보가 도달하면 각 군사들은 전투 준비를 합니다. 적군이 다가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적군이 아군 군사들이 진을 펼친 곳에서 100보 안으로 접근할 경우, 신호에 따라 포수들이 일제히 나아가 한 줄로 서고 천아성 나팔을 불다가 그치면 일제히 사격합니다. 다음으로 불화살인 기화(起火) 및 천아성 나팔의 신호에 따라 당파를 든 파수(鈚手)는 화전을 쏘고 수레 속의 대포를 일제히 사격합니다.

화전과 각종 화포의 사격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50보 안에 도달하면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인 이른바 추인을 벌려 세웁니다. 이어 신호에 따라 궁수가 일렬로 늘어선 이후 천아성 나팔에 따라 훈련 표적인 추인에게 일제히 사격한 이후, 궁수대를 거두고 추인과 화살을 수거하게 됩니다. 이어서 가상 적군이 전차 앞까지 도달하는 상황이 되면 전차를 중심으로 모든 병종의 군사들이 전차를 중심으로 적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호포를 들어 한 번 쏘고 북을 천천히 치고 푸른·붉은·흰 대기(大旗)를 세 방면을 가리키면 전차와 기병과 보병의 세 장수들이 모두 기에 응(應)한다. 북을 아주 빠르게 치고 천아성 나팔을 불면 기병(車兵)은 수레를 밀고 보병은 수레에 붙으면 뒤에 있는 기병은 좌·우위(左右翼)로 나뉘어 원앙(鴛鴦)처럼 달려 나간다. 북을 빠르게 치고 천아성 나팔을 연이어 끊어지지 않게 불고 함성을 지르며 나아가 싸운다. 이때 앞쪽에 있던 북병(前伏兵)의 안으로 들어오면 급히 솔밭을 울리고 순시기(巡視旗)를 흔들면 앞 북병이 옆에서 돌격하여 싸우면 적군이 패배한다.”



적군이 접근하면 신호에 따라 거병은 전차를 앞으로 밀어 붙이며 적군을 압박하고 보병들은 전차에 붙어 전차를 엄호합니다. 이때 뒤편에 있던 마병들이 전차의 좌우로 나뉘어서 일렬로 달려 나와 적군을 공격하는 모습이 앞의 인용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을 계속 울리고 천아성 나팔을 연속으로 불면서 함성을 지르며 전투를 하는 동안, 앞쪽에 배치되어 있던 우리 북병들은 적군의 옆쪽에서 달려들어 기습하는 모습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大旗), 고초기 등 다양한 깃발이 등장하고 있는데 각종 깃발의 종류와 운용 방식, 그리고 북의 사용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의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적군의 공격을 물리친 이후 전투 대형을 만들어 최초 적군을 밀며 공격하던 위치로 복귀합니다. 원래의 위치로 돌아온 이후 적군이 다시 우리 군사를 공격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적군을 공격하는 동작을 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뒤에 있던 북병이 숨어 있던 곳에서 밖으로 달려나가 적군을 공격하다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뒤쪽의 북병이 있는 곳까지 유인하면, 북병이 달려 나와 급습하고 아울러 후퇴하던 본대도 몸을 돌려 적군을 공격합니다. 적군을 물리치면 전차와 각 군사들이 대오를 일제히 거두어 들고 최초 대열을 갖추었던 곳으로 물러납니다.

진영으로 돌아오면 전투 중의 공과와 죄를 살펴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과오가 있는 자에게 벌을 내리며 「거기보합조소절목」의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기보합조소절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기보대조절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3 「거기보대조절목」 설명

지난 시간에는 「거기보합조소절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기보대조절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훈련 절차로 대규모 군사를 운용하는 훈련인 대조(大操)의 절차를 정리한 「거기보대조절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훈련 절차의 대체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언급하였었습니다만, 간략히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련이 있기 하루 전에 훈련을 알리는 조패(操牌)를 걸고, 훈련 당일에 군사들이 훈련장으로 가서 도열합니다. 그 모습은 전차와 포차 등이 교장의 좌우에 벌려 서 있고 보병들이 전차에 붙어 도열하며 마병은 입장하면서 사열대인 장대(將臺) 좌우에 횡으로 도열합니다.

도열한 후 대장이 교장으로 입장하면 중군 이하의 지휘관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어 대장을 맞이합니다. 대장이 장대에 올라앉고 중군 이하의 모든 지휘관들을 대장 앞으로 모이도록 하여 훈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합니다. 명령을 하달하면 지휘관들은 물러나 휘하의 거정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어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앉아 있는 군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말을 타며 전투 훈련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마병, 중군, 기고에 이어 거병과 전차에 속한 기병대(奇兵隊), 보병대 등이 차례로 행군하다가 교장의 한 가운데 도착하면, 가상의 적군 복병이 뒤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적의 복병이 나타나면 뒤에 있는 정찰 마병인 이른바 초탐마병(哨探馬兵)이 깃발을 흔들어 이를 알려줍니다.

적의 복병이 나타났다는 깃발 신호가 있으면 군사들은 몸을 돌려 적군을 향합니다. 복을 빠르게 치고 나팔을 불면 거정들은 전차와 포차를 몰아 앞쪽에 몰아 앞쪽에 횡으로 일자진(一字陣)을 펼칩니다. 일자진을 펴는 것은 적군이 우리 진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병들은 전차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진을 펼치고 대비합니다.

이어 진영의 앞뒤로 복병을 내어 적을 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을 펼친 이후에는 일단 군사에게 휴식하며 대기하도록 하다가 가상 적군이 전면적으로 공격하면 본격적인 전투 훈련을 합니다. 다음은 각 군사들의 전투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적군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100보 안에 도달하면 호포를 한번 쏘고 발라(哮囉)를 분다. 그러면 각 병사들은 일어나며 붉은 고초기를 전차 5보 앞에 세우고 단파개 나팔을 불면 각 전차의 총수(銃手) 및 보병의 창총수(鎗銃手)들이 모두 나와 일렬로 선다. 천아성 나팔을 불면 일제히 한 차례 사격하고 솔발을 불면 대를 거둔다.”

적군이 총공격하여 진 앞 100보 앞에 도달하면 전차와 보병대의 총수 등이 나와 적군에게 일제히 사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총수는 연해본에는 ‘승자총통 및 조총을 사격하는 총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鎗)은 명나라의 소형 화기인 쾌창(快鎗)을 의미하는데, 이 무기는 길이 2척의 총신이 짧은 개인용 화기의 일종으로 1m 길이의 곤봉 앞에 부착하여 연환(鉛丸) 20개를 넣어 사격하고 이어 곤봉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파개 나팔이란 나팔 소리를 잠시 쉬었다가 다소 긴소리로 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총 사격 이후에는 연이어 화전 및 호준포, 불랑기 등을 일제히 사격합니다. 적군이 화전, 불랑기, 호준포 등의 일제 사격에도 불구하고 50보 안, 즉 60미터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궁수들이 나아가 일렬로 서서 활을 사격합니다. 궁수의 연속적인 사격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계속 전진하면 이제 본격적인 근접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자료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호포를 한 번 쏘고 북을 천천히 치며 남색, 백색, 홍색의 깃발을 세 방면에 가리키면 전차와 기병과 보병의 세 장수들이 모두 인기(認旗)로 위에 응(應)하며 아래로 명령한다. 북을 아주 빠르게 치고 천아성 나팔을 불면 포차(砲車)는 세워두고 전차병은 함성을 지른다. 거병(車兵)은 수레를 밀고 나가고 보병은 함성을 지르며 나아가 싸우는데, 선수(鎗手)는 적군의 말을 막고 적의 창을 가로막으며, 패수는 칼을 들고서 말의 발을 벤다. 도곤수(刀棍手)는 말의 머리를 때리거나 혹은 말의 배를 찌르고, 파수는 위로 적군의 목을 찌르며[戮] 아래로는 말의 눈을 찌른다. 쾌창(快鎗)은 (사격 후) 자루를 돌려 곤(棍)처럼 사용한다. 무릇 살수(殺手)는 진에 임하면 모두 대문(大門)·소문(小門), 허허실실(虛虛實實)의 법을 써도 괜찮다. 화병(火兵)들은 거마작(拒馬柵)을 지니고 있다가 두 수레의 사이에서 수레를 따라 나아가고 물러나면서 각자 책임에 따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적과 근접전 할 때 각 군사들의 전투 동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병인 적을 근접전 군사들이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낭선수는 말을 막고, 패수는 말의 발을 베고, 도곤수는 말의 머리를 때리거나 배를 찌르고, 파수는 적군의 목을 찌르거나 말의 눈을 찌르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형 화기가 부착된 쾌창을 든 쾌창수는 자루를 돌려 곤봉처럼 때리며 적군을 저지합니다. 보조 병사인 화병들도 말을 저지하는 장애물인 거마작을 지니며 적의 기병이 돌진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마작은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 위한 휴대용 철제 장애물로서 날카로운 창을 여러개 묶어 세워놓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방어용 무기는 거마 일명 행마(行馬)라고 하되 거마창이나 거마목은 몸체는 나무로 만들고 끝에 철제 날을 붙인 것이고 거마작은 전체를 철제로 만든 것입니다. 전차병과 보병들이 적군을 저지하면 위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마병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앞으로 달려 나와 적군을 옆에서 공격합니다.

마병들은 적과 근접전 시에는 마병이 가진 여러 종류의 단병기인 편곤, 장도, 언월도, 쌍도, 구창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마병이 돌격하여 앞의 북병이 있는 것에 도달하면 북병들이 대기(大旗)와 순시기의 신호에 따라 옆에서 달려나와 기습하여 적군을 패배시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병종별로 각기 대오를 정돈하고 뒤로 수십보 정도 물러 나와서 군사를 정돈합니다. 돌아오던 중 적군이 다시 아군을 공격하면 이에 대응하여 적군을 공격하다가 거짓으로 패배하여 적군을 우리 북병이 있는 곳으로 유인합니다. 적군을 패배시킨 이후 최초 출발한 진영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방영(方營)을 설치합니다. 방영을 설치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겠습니다.

“중군(中軍)이 아뢰기를 ‘숨은 적군이 패하여 물러났지만 적의 형세가 더욱 많아져 곧 우리 군대를 쳐서 올 것입니다. 지세(地勢)가 평탄하고 넓으니 방영(方營)을 설치하여 적에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징의 가장자리를 쳐서 울리고 깃발을 내어 안팎의 표(標)를 세운다. 북을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치고, 파대오(擺隊伍) 나팔을 불면 거병(車兵)은 각각 해당 방위 색으로 모두 밖을 향하여 진을 벌리고 보병은 각각 전차에 붙으며, 마병은 말에 타고 안으로 달려 들어와 내진(內陣)을 친다. 징을 울리면 나팔을 그친다.”

중군이 방영 설치를 건의한 이후 지세가 방영을 설치하기 좋은 곳에 각종 기수를 내보내어 안팎의 기준이 되는 지점에 서서 표(標)가 되고, 이어 신호에 따라 전차와 보병은 바깥 진, 외진(外陣)을 치고, 기병은 안으로 들어와 내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연병지남』에 그림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병학지남』의 「오방기초선출입표도」를 보면 고초기와 오방기, 각기 등이 방영을 펼치는 기준점이 되는 곳에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영을 친 이후에는 방영의 전후좌우로 정찰 마병인 탐마(探馬)와 복병을 내보내고 나면 방영의 군사들은 휴식을 취합니다. 이어서 적의 복병이 전면에 나타나는 상황을 부여하는데, 전면에 나간 탐마가 황기(黃旗)를 흔들어 적 복병의 출현 사실을 알립니다.

이 경보를 들은 이후 방영 전면의 장령(將領)들이 명령을 전달하면 군사들은 전투 준비를 합니다. 방영의 전면에 적군이 100보 안에 이르면 조총과 승자총통, 화전, 대포 등을 신호에 따라 발사합니다. 각종 화기 사격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전차 앞에 이르면 앞에서 보았듯이 근접 전투를 합니다.

이어서 동쪽, 서쪽, 북쪽 방면에서도 적군이 차례로 나타남을 가정하여 전면의 절차와 동일하게 전투 훈련을 합니다. 이어서 각 방면에서 적군이 일제히 네 방면을 공격하려 한다는 상황을 부여하고, 이를 각 방면의 탐마들이 경보하면 중군이 명령을 내려 군사들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총 등을 사격하고, 더욱 접근하면 근접전을 하며 방어하게 됩니다.

적군을 물리친 이후 진영으로 돌아와 땀감과 물을 구하기 위해 이를 담당하는 병사인 이른바 초급병(樵汲兵)을 내보냅니다. 이어 내진에 있는 마병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 말에게 물을 먹이고 신호에 따라 대오를 거두어 돌아옵니다.

방영을 설치하고 각 방면별로 훈련을 마친 이후, 방영을 거두어 원래 출발하였던 곳으로 철수하기 위해 군사들은 일어나 대오를 정돈하고 철수 준비를 합니다. 출발 신호에 따라 행군하여 훈련을 처음 시작하였던 곳인 교장으로 돌아가 진을 펼칩니다.

교장에 도착한 이후 군사들이 모두 도열 하면 중군이 훈련을 마친 것을 대장에게 하직하고 병사들을 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장에 세웠던 대장을 상징하는 깃발인 수자기(帥字旗)를 내리고 이후 대장이 말을 타고 퇴장합니다. 이어 진을 파하고 군사들이 해산하면서 대규모 조련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기보대조절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교가 채택한 전차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4 전차의 형태

지난 시간에는 「거기보대조절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차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병지남』의 마지막 부분인 「전차제」는 이 책에서 운용하는 전차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의 제도는 선조대 무인으로 훈련원 주부였던 정준봉이 개발한 것으로 북병사 유형이 이를 바탕으로 개량한 것이었습니다. 전차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바퀴의 밖과 횡축(橫軸)의 위에 각각 하나씩의 기둥을 세우고 두 기둥의 상단은 뾰족하게 깎아 예(桺)를 만든다. 그리고 한 횡목(橫木)의 두 끝에 구멍을 뚫어 그 예(桺)에 끼워서 기둥 밖으로 길게 나오게 하되 두 기둥이 가운데 있도록 한다. 가까운 아래쪽에 서로 마주하여 구멍을 뚫고 한 횡목(橫木)의 두 끝을 예리하게 깎아 예(桺)를 만들어 구멍에 끼운다. 횡목의 위아래는 모두 판(板)을 사용하여 가리는데, 판의 두께는 한 치(寸) 정도로 하되 반드시 단단한 나무를 사용한다. 횡목(橫木)에는 여섯 개의 구멍을 뚫는데 이는 칼과 창(劔鎗)의 예(桺)로서 앞에서부터 뚫어 수레의 뒤쪽 횡목에 넣어 묶어둔다. 또 아래층 판자에 세 구멍을 뚫어 총과 포를 설치하고, 두 기둥의 뒤에는 구멍을 뚫어 원목(轆木)을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퀴와 같이하고 두 원목(轆木)의 끝에도 횡강(橫杠)을 덧대어 길게 원목 바깥으로 나오게 하여 이것으로 수레를 밀게 한다. 두 원목의 가운데에도 횡강(橫杠)을 더하여 칼과 창(劔鎗)의 자루를 묶을 수 있도록 한다. 두 기둥의 아래 끝과 두 원목의 가운데 아래 면에는 모두 하나의 구멍을 뚫고 버팀목을 덧붙인다. 수레의 높이와 너비는 반드시 수레 뒤쪽에 있는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창 구멍의 높낮이도 또한 오랑개의 말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서 기준을 삼는다. 그리고 두 기둥의 곁에는 각각 하나씩의 작은 여닫는 문을 다는데 이는 열거나 닫아 곁에서 싸우는 우리 군사들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땅히 그 진을 벌릴 때는 문(門)을 덧대어 날개를 넓혀 적군의 총탄과 화살을 막으며, 근거리에서 혈전(血戰)을 벌일 때는 문을 빼내고 날개를 접어 전사(戰士)들이 출입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병사들의 수효는 앞에 나타나 있고 포차(砲車)의 제도에 대해서는 『연병실기(練兵實紀)』에 보이지만 간혹 이를 모방하여 만들어도 괜찮다.”

여기서 전차는 적의 공격을 막을 방패를 좌우에 둘러치고 창을 설치하고, 진을 벌릴 때는 전차에 문을 펼쳐 방패로 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횡목에는 여섯 개의 구멍을 뚫어 창과 칼을 장착하고 뒤쪽 횡목에는 세 구멍을 뚫어 총과 포를 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적이 접근하면 전차에 기대어 조총 등과 함께 불랑기 등의 화포를 쏘도록 하였으며, 적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여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전차를 진의 밖에 배치하고 화포를 쏘아 적을 약화시키고 창과 칼로 적의 돌격을 저지하며 근접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에는 기병을 두었다가 돌격시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체제 등은 척계광의 『연병실기』를 참조하였지만, 북방 여진의 위협을 겪던 17세기 초반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우 특색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병지남』의 전차 운용 전술은 곧바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 또는 화차를 운용하는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병자호란 이후 청의 우수한 기병에 대응하는 위해서는 전차나 화차 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숙종 즉위 직전인 1673년 오삼계 등 세 군벌이 일으킨 이른바 삼번(三蕃)의 난으로 중국 청나라의 정세가 혼란스러워지자, 이를 틈타 조선에서는 남인의 영수 윤휴(尹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윤휴는 방패를 수레 주위에 세우고 그 속에 병기를 싣고서 앞뒤에서 군사들이 밀고 끄는 소형 전차를 제안합니다.

윤휴와 달리 영의정 허적 등은 조총 등 소형 화기를 다량으로 장치한 화차를 우선 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679년 숙종 5년에는 한강변 노랑에서 시행된 대규모 군사 훈련인 열무(閱武)에서 화차 수십량을 동원하여 별도의 진을 치고 사격하는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랑은 오늘날의 노랑진이 아니라 노랑 건너편의 모래 사장으로 대체로 용산의 이촌동 일대였습니다.

전차 및 화차를 고안하고 이를 운용하는 전술에 대한 논의는 18세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710년대 올린 상소에서 폭 4척 5촌으로 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길이 15척에 달하고 6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1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외바퀴 독륜 전차를 제안합니다. 이 전차에는 대형 기계활인 노(弩) 또는 화포를 장착하고 위쪽에는 생가죽의 지붕을 덮어 화살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전차 및 화차 논의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금위영 등 중앙의 각 군영과 여러 지방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18세기 후반인 정조대에 간행되어 조선 후기 전술을 통일하였던 어정(御定) 병서인 『병학통(兵學通)』에는 화포를 장비한 포차의 존재와 운용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간행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당시 한성의 세 군영인 훈련도감에는 화차 121량, 금위영에는 화차 56량, 어영청에 전차 51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영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차는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바퀴의 오륜전차 5량 이외에 양륜전차 20량, 독륜전차 26량 등 다양한 형태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연병지남』이 조선의 주된 병서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지만, 조선 후기 전차 등 수레를 이용한 전술의 원형으로서 계속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다양한 시도와 채택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연병지남』이 조선 후기 병학사에 미친 의미가 생각보다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차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군사용 신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5 조선 후기의 군사용 신호

지난 시간에서는 『연병지남』의 주요한 내용을 실제 자료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강의의 마지막으로 『연병지남』에서 자주 언급되는 다양한 군사용 깃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인용문에서는 다양한 깃발이 등장하고, 깃발과 각종 악기를 함께 운용하여 군대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군대에서 사용하던 악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국악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정리가 이루어졌지만, 조선 시대 군사용 깃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반차도 등에 보이는 깃발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깃발의 종류나 역할, 체제 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10년대 중반 조선 후기에 사용된 각종 군사용 깃발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책인 『기제(旗制)』가 일본의 오사카부 도서관에서 발견되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이 책을 영인하여 민족문화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소개하면서 조선 후기 군사용 깃발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습니다.

군사용 깃발과 군악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하도록 한 것은 16세기 이후 전쟁의 양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6세기 후반 임진왜란의 경우, 참전한 주요 국가 모두가 화약 무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위력이 높았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화약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화약 무기가 전면적으로 사용되면서 전투에서 전장 소음은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따라서 시각적 신호 수단인 깃발의 대량 운용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인기(認旗) 등 부대 단위 깃발, 진법용 깃발, 신호용 깃발, 기타 깃발 등 10여 종의 깃발이 있어 부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부대 단위 깃발인 인기(認旗)는 가운데 해당 방위의 색깔을 넣도록 하였는데, 오행에 따라 중앙은 황색, 앞은 홍색, 좌는 남색, 우는 백색, 후는 흑색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영(前營)의 장수인 전영장의 인기는 홍색 바탕에 주위에 청색을 띠니다.



다음은 신호용 깃발로 대표적인 것으로 오방기와 고초기를 들 수 있습니다. 오방기는 규모가 컸으므로 일명 대기(大旗)라고도 하였습니다. 오방기는 사방 5척으로 중앙에는 용, 호랑이 등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탕색은 해당 방위의 색깔을 따르되 기폭의 가에는 바탕 색깔에 상생하는 색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앙에 그려진 동물 그림에 따라 청룡기, 주작기, 백호기, 현무기, 등사기 등의 명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초기는 오방기와 함께 운용하여 해당 방위의 부대가 일정한 움직임을 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깃발로, 그 모양은 길이 12척의 긴 깃발이며 색깔은 해당 방위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 사용은 예를 들면 해당 방위의 오방기와 고초기를 모두 움직이면 모든 방위의 부대가 그 신호에 따라 동작을 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부가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호용 깃발이 있었는데 당보기(塘報旗), 영기(令旗) 등이 그것입니다. 당보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척후병인 당보군(塘報軍)이 소지하는 깃발로 사방 1척의 크기에 9척의 창에 달며 노란색을 씁니다. 영기는 명령을 전달받을 때 반드시 소지하고 가야 하는 소형 깃발로 진영(陣營) 내 출입 등에 필요한 것입니다.

진법용 깃발은 주로 정사각형의 방진을 칠 때 사용하는 깃발로서 방진의 크기를 정하고 방진의 문(門)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깃발입니다. 진법용 깃발로는 문기(門旗)와 각기(角旗)가 대표적입니다. 문기는 방진 각 방위의 중간에 문을 낼 때, 문 좌우에 세우는 깃발로 조선 시대 각 군영의 방진은 외루 각 방위에 문 1개소씩 그리고 자벽은 남쪽에 1개소의 문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기는 모두 10개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기의 제도는 사방 5척이며 깃대의 길이는 12척입니다. 중앙에는 날개 달린 호랑이(翼虎)를 그리고, 방위의 색깔에 따라 바탕색을 칠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의 자벽에 세우는 문기는 중앙의 색깔이 황색으로, 자료에는 황문기(黃門旗)로 나오기도 합니다. 각기는 방진의 외루를 설치할 때 각 모서리[角]에 세우는 깃발로서 예를 들어 동남쪽 모서리일 경우 남쪽 방향에는 남동각기(南東角旗), 동쪽 방향에는 동남각기(東南角旗)를 세우도록 합니다.

각기의 제도는 사방 4척이며 깃대의 길이는 12척으로, 남동각기의 경우에는 남쪽을 상징하는 홍색을 위에, 동쪽을 상징하는 남색을 아래 색깔로 합니다. 동남각기의 형태는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과 전투 이후 방영을 설치하기 위해, 진의 모서리나 군문을 설치할 기준이 되는 각 지점에 각종 깃발을 보내 세우고 군사들을 배치하는 동작이 위에 있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병학통』이나 『병학지남』의 「오방기초선출입표도(五方旗招先出立表圖)」입니다. 이를 보면 오방기는 방진을 펼칠 때 외루(外壘)의 각 방위의 중간에 세우는 깃발이고 고초기는 방진의 안쪽인 자벽(子壁) 각 방위의 중간에 세워 방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깃발에는 행하고자 하는 신호에 따른 동작이 있는데 자료에 보이는 깃발 신호와 동작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한편 북을 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동하라는 의미로서 신호용으로 북을 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북을 천천히 치는 것을 점고(點鼓)라고 하는데, 북소리 한 번에 20보, 약 25m를 이동합니다. 점고보다 북을 빠르게 치는 것을 긴고(緊鼓)라고 하는데, 북소리 한 번에 1보, 즉 1.2m를 이동합니다. 북을 매우 빠르게 마구 치는 것을 뇌고(擡鼓)라고 하는데, 이는 나아가 싸우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적군이 전차에 접근하면, 각 병종들이 전차를 중심으로 싸우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호포를 쏘고 북을 치면서 푸른색, 붉은색, 흰색의 세 가지 대기(大旗), 즉 오방기를 세 방면으로 점(點), 즉 가리키다 지면에 닿기 전에 다시 들면 전차, 기병, 보병의 세 장수들이 응(應), 즉 모두 대기의 신호에 호응하여 반복합니다.

그리고 북을 매우 빠르게 치는 뇌고를 하고 천아성(天鵝聲) 나팔을 불면 적군을 공격합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 군사 신호 체계는 매우 다양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어 전장의 혼란한 상황에도 이에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서구의 여러 전쟁 영화의 전투장면에서 매우 다양한 깃발과 악기 등이 사용되고, 이에 따라 군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아직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이러한 고증의 불충분함은 스토리 구성 등을 통해 보완하고 이것이 한국 영화의 장점이 되고 있지만, 전쟁 영화가 다른 장르에 비해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전투씬의 정확성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국 영화에서도 전근대의 주요 전쟁과 관련된 전투장면에서도 각종 깃발과 취타 소리가 전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재현되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병지남』의 각 병종 및 수레 등에 대한 주요한 내용 및 군사용 신호 깃발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연병지남』의 간행 배경과 저자인 한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병지남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 역사상 병서와 병학 및 전술에 대해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에는 제대로 된 군대도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함께, 병학의 존재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개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500년 이상 한 국가가 독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을 가진 군사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조선 왕조의 장기 지속은 정치나 외교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선의 군사적 역량에 대해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 다른 이해가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선 시대를 이해할 때 또 다른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더욱 풍요롭고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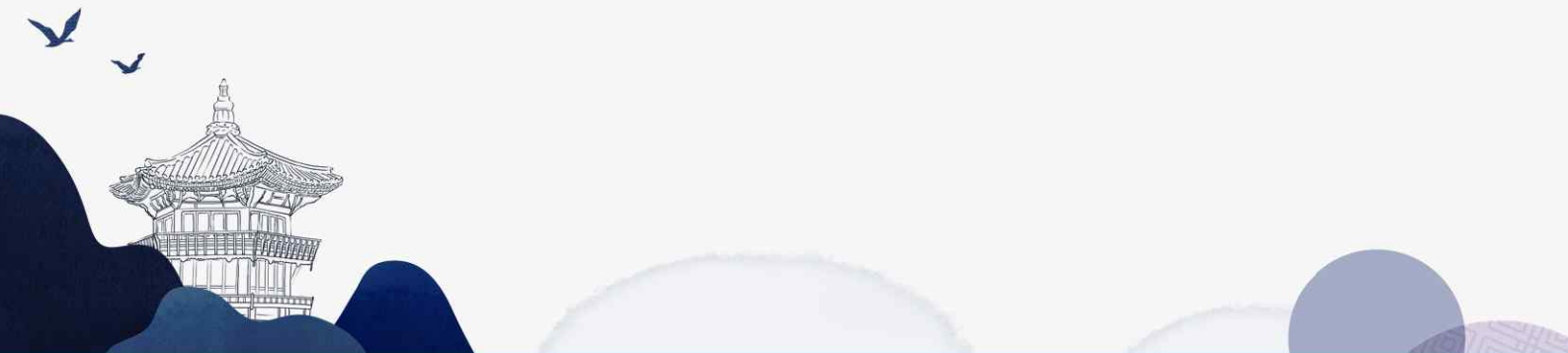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이것으로 『연병지남』에 대한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강의를 들으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6

Reading Yeonbyeongjinam

6-1

Explanation of Geogibodaeco-gyusik

Hello, students. I'm Roh Young-Koo, one of the lecturers in this course titled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on Yeonbyeongjinam. This is the sixth lecture, and the theme is 'Reading Yeonbyeongjinam.'

In the last lecture, we learned about the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its structure and general contents, and its author, Han Gyo, a Military scholar and Neo-Confucianist in the mid-Joseon period.

Yeonbyeongjinam is a military book which has not been known to the public until now, but we learned that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was the outcome of various efforts of Joseon to prevent the cavalry of northern Jurchen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Chinese military book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and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cience in Joseon.

We also learned that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is book in military history, it was not well known until now, due to the passive defense strategies centered on fortress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Considering that Yeonbyeongjinam, which does not have much volume, contains so many historical significances, I always feel that even the smallest data must not be neglected.

In this lecture, we will read the main contents of Yeonbyeongjinam and take the time to understand the details and find their meaning.





As we saw in the last lecture, Yeonbyeongjinam can be largely divided into four parts: Geogibodaeogyusic (the Basic Formation), Geogibohapjosojeolmok (Small-scale Combined Training), Geogibodaejojeolmok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and Byeong-geoje (the Structure of Combat Wagons). First,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Basic Formation in this class.

As we saw in the last lecture, the Basic Formation details the role of geojeong who commands a combat wagon squad and the organization of dae (squad) consisting of 12 soldiers, including musketeers, assault soldiers, archers, and cavalymen. And it elaborates on the positions of each group of soldiers surrounding the combat wagon in a formation, their specific roles and movements in a combat.

Geojeong is a lower rank commander of a combat wagon and its soldiers.

If one combat wagon and 36 soldiers, or three dae (squads), assemble to form one gi (platoon), the gichong (platoon commander) becomes the geojeong, and if one combat wagon and 12 soldiers assemble to form one dae, the daejang (squad commander) becomes the geojeong.

First, the organization of chongsudae (musketeer squad), a basic unit of 10 musketeers, and the specific course of actions of each soldier during the battle, are described as follows.

"Eight of the musketeers in a squad should stand behind the cart and fire their muskets when the enemy is far away. When the enemy approaches close, divide them into two groups of four, with one group pushing the cart, and the other group carrying their muskets. The two tagong (operators) should stand beside the two wheels of the cart, and when the enemy is far away, they should come out with the other musketeers to shoot. When the enemy is near, they should hand their muskets to one of the groups and escort the cart with a flat-head cudgel. If the cart fell into a pit, they must carry it out with all their strength, and if the enemy comes close, they should hit them with the cudgel. Hwabyeong, the porter, should carry the cheval-de-frise and retreat along the carts between the two carts."



In other words, the musketeer squad consists of a total of 12 soldiers, including 1 leader, 1 porter, and 10 musketeers. The description is based on a unit of battle, one combat wagon and one musketeer squad. Two out of ten musketeers also take the duty of tagong, operating the wagon. If the enemy is far away, 10 musketeers come out and shoot in a row.

First, two of them come to the front, fire, and return to their position while the next two take their turn, and this process is repeated. So, the volley fire has five rounds of shooting. If the enemy approaches despite the fire, 8 out of 10 musketeers are divided into 2 groups, and the 4 of one group hand over their muskets to the 4 in the other group to push the wagon forward.

The other two hand their muskets to the musketeers next to them to fulfill their duty as tagong, that is, to control the combat wagon, and with a flat blade attached cudgel in their hands, they guard the wheel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wagon, and brace themselves for the wheel falling into a pit as the cart moves forward.

Next, let's look at the formation of salsudae (assault soldier squad) consisting of assault soldiers and a combat wagon, and their course of actions in close combat.

"An assault soldier squad consists of a pair of shielders standing at the front, a pair of langxianmen next, followed by two pairs of spear-swordmen, and one pair of ranseurmen at the back. Divide the squad into two groups to make Yangui (yin and yang), and make a pair with a shielder and a langxianman and let them stand close to one side of the cart, and another pair close to the other side. A pair of spear-swordmen stand behind them, and one ranseurman stands at the center of the back. When the enemy force gets close, langxianmen block the enemy horses with their spears, while the shielders cut the horse's foot with a sword, spear-swordmen hit the horse's head or stab the horse in the stomach, and the ranseurmen stab the enemy in the face.





Salsu (assault soldiers) are soldiers for close battles, whose name and system appear in Jixiao Xinshu for the first time. In Jixiao Xinshu, the first two of the 10 soldiers, excluding one commander and one porter out of 12 members of one squad, are set up as shielders, the next two are langxianmen, the next four are spearmen, and the last two are ranseurmen. The shielders are in the front, and they stand in order to make a battle formation in two rows.

The basic battle formation of the assault soldier squad is the two-row Mandarin Duck formation. To make the Mandarin Duck formation, the commander stands in front at the center, followed by shielders, lanxianmen, spearmen, and ranseurmen in double columns and the porter stands at the end. The formation was named Mandarine Duck because it looked like a couple of mandarine ducks, which are so made for each other that they are always together.

However, the formation of the assault soldier squad is somewhat different from its original form in Jixiao Xinshu or Lianbing Shiji. The numbers and positions of shielders, langxianmen, and ranseurmen are the same, but instead of four long-spearmen, the assault soldier squad of Yeonbyeongjinam presents four spear-swordmen, a new brach of assault soldiers.

A spear-swordman is a soldier equipped with hyeopdogon. As we saw in the last lecture, the hyeopdogon has a 15cm and 150g blade inserted into a shaft of about 2m, a kind of short spear with a rather long blade of 1.4m attached, which was a weapon mainly used by infantry to fight against cavalry. When the northern Jurchen cavalry made a concerted charge, a long melee weapon of 3m, such as a long spear, was easy to break or damage, so it was difficult to stop the cavalry with it.

However, a short cudgel or a hyeopdogon, a short spear with a blade, although the reach was short, was easy to wield and not easily broken, so it was useful to stop the cavalry. A dogonsu (spear-swordman) was a soldier equipped with a hyeopdogon, and when confronting an enemy cavalry soldier, he first stabbed the enemy's horse with the blade of the spear, making the soldier fall, and then cut him with the sword, which was very useful in the battlefield.



Unlike Jixiao Xinshu and Lianbing Shiji, Han Gyo organized four spear-swordmen with hyeopdogon instead of long-spearmen to counter the cavalry. This clearly shows that Yeonbyeongjinam is a military book containing tactics to counter the cavalry of the north.

Deungpae (shield) is a light, solid circular shield made of rattan, which is held by the deungpae-su (shielder) at the front. The shield is made of a finger-sized rattan stalk rounded and wrapped tightly with bamboo bark, with the center protruding outward so that there's some space inside to protect the hands and arms from the arrows darting in.

The central protrusion of the shield has a ghost decoration called gwidu (ghost head).

The shields were widely used in the southern part of China because wisteria is abundant there. In addition to the sword, shielders carried shurikens, and when the battle began, they hung the sword on the left arm holding a shield, threw the shurikens at the enemy with the right hand, and then wield the sword to attack.

The langxian is a type of spear made by attaching a spear blade on top of a bamboo stalk with branches, and it became widely known as Qi Jiguang adopted it as a regular weapon. It is a unique weapon that can both defend and attack because it has branches attached to it, so it can bounce off flying arrows when you spin the handle.

There were two langxianmen behind the shielders. The length of the langxian is 1 jang and 5 cheok, about 3m, and the weight is 7 geun (4.2kg), and there are two types of langxian: bamboo and iron. It was quite heavy and long, so people with good physical strength were selected as langxianmen.



The dangpa (ranseur) used by the dangpasu (ranseurman) at the back is a type of spear with three spear blades, with a length of 7 cheok 6 chon (230cm) and a weight of 5 geun (3kg), and the blade in the middle is about 2 chon (6cm) higher than the left and the right blades. In particular, it functioned as a launcher for hwajeon (fire arrows), which could be hung between the flat blades on the left and right and fired. The ranseur with three blades was an effective weapon to catch and push away the Japanese sword, or to stab down the dashing Northern cavalry.

The archer squad, with soldiers with bows and arrows, is not found in this book's main reference, Jixiao Xinshu or Lianbing Shiji. The following is the battle of the archer squad.

"An archer squad shoots arrows when the enemy nears within 50 steps. When the enemy comes close, divide the squad into two to make Yangui (yin and yang), and help the assault soldier squad fight. Everyone wears a long sword and prepares for bloody battle after arrows run out."

If the enemy comes within 100 bo (steps), that is, 120m from their position, they shoot their muskets as we saw before, and if the enemy enters within 50 bo, about 60m, the archers start firing arrows. One bo is about 1.2m. As the enemy approaches closer, the assault soldiers stand on either side of the combat wagon, and the archers stand behind them and help them to fight close combat using the long sword. The shape of the formation is called Yanguijin, which is a battle formation made by dividing the two rows of Mandarin Duck into two groups of five soldiers.

At this point, the musketeers push the combat wagon forward. The archery is a traditional strong point of Joseon, and until the new matchlock gun, the Jochong (musket), was introduced to Japan in the mid-16th century, Joseon, which had excellent bows and arrows such as Gakgung and Pyeonjeon, was able to strategically gain the upper hand over Japan. However,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Joseon's superior archery ability was offset by the Japanese military armed with muskets, and during the war, Joseon made efforts to cultivate musketeers and assault soldiers.



Founded at the end of 1593, the 26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Hullyeondogam (the Military Training Command) was initially organized with assault soldiers for close combat and musketeers, but soon after, archers with bows and arrows were added, which was the so-called three branches system.

After the Japanese Invasion, the proportion of archers gradually began to decline, which was related to the situation where high-penetrative muskets were needed more than rather weak bows and arrows to prevent the attack of armor-protected Jurchen cavalry.

However, the firing speed of the musket was slower than that of the bow, so there was a problem that they immediately encountered enemy cavalry after just one shot.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use archery, which was somewhat low penetrative but had quicker firing speed, to delay the enemy cavalry's charging and secure time to reload the muskets. We can tell that archers were still important in terms of tactics.

The following is the description of mabyeongdae, the cavalry squad, in a battle.

"When the enemy is far away, the cavalry squad get off the horses and shoot the triple-barreled gun or arrows. When the enemy approaches, climb up the horses and make Mandarin Duck Formation as left and right wings, running, shouting and fighting using flails, swords, guandaos, double swords, or hook spears. Or, take turn to fire the triple barrel hand cannon on horseback, but change the formation according to the battle situation, taking Yangui-jin or Samjae-jin in time."

This shows that when the enemy is far away, the cavalry get off his horse and fire the triple barrel hand cannon or arrows, and when the enemy approaches, they climb up on the horse and run in Mandarin Duck Formation, which is a two-row column, and fight close to the enemy using flails, swords, guandaos, double swords, or hook spears.



In some cases, they didn't fight in close combat but attacked the enemy in a distance with a series of shots, taking turns to fire the triple-barrel hand cannons. As was mentioned in the previous lecture, the triple-barrel hand cannon is a small portable firearm with three short barrels and a wooden handle, and could be fired by loading bullets on the three barrels and lighting up the wick one after another.

It was mainly used by cavalry because it was easy to carry, but due to its short barrel and weak penetration, it was widely used for signaling, rather than for combat, in the late Joseon Dynasty. Since cavalry was highly mobile, they ran in the Mandarin Duck Formation, but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y made Yangui-jin or Samjae-jin. Samjae-jin is the formation of encompassing and attacking the enemy by dividing one squad into three small groups.

In close combat with the enemy, cavalry were asked to use various types of melee weapons such as flails, and the related martial arts are presented in Supplemented Annotation of Muyejebo, mentioned in the last lecture. You can refer to this book for further information.

In this session, we looked at the main contents of Geogibodaegyusic (the Basic Formation). Next time, we will explore the formats and contents of Geogibohapjosojeolmok (Small-scale Combined Training).



6-2

Explanation of Small-scale Combined Training

Last time, we looked at the main contents of Geogibodaegyusic (the Basic Formation). This time, we will explore Geogibohapjosoeolmok (Small-scale Combined Training).

While the Basic Formation describes the combat method of each squad including the musketeer squad, the Small-scale Combined Training describes a small procedure of hapjo, a joint training of combat wagons, cavalry, and infantry.

Before starting the military training in earnest, the combat wagon soldiers, infantry, and cavalry line up with weapons, and jung-gun (chief of staff), who oversees the training, reports to jujang, the commander-in-chief, that the training will begin, and then sends out scouts to check the enemy's movements. When the warning about enemy troops arrives, each soldier prepares for battle. When the enemy approaches, they fight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 when the enemy approaches within 100 steps from the place where our soldiers wait in a battle formation, the musketeers go ahead in line according to the signal, listen to Cheon-a-seong (long blow of bugle), and begin volley fire when it stops. Next, according to the signal of gihwa, the fire arrow, and Cheon-a-seong, the ranseurmen shoot hwajeon (fire arrows) and the cannons in the cart at once.

When the enemy reaches within 50 steps despite the bombardment of hwajeon and various other artillery, the so-called chuin, the scarecrows made of straw, are lined up at intervals. The archers then line up according to the signal, shoot at the chuin, the training targets, in unison at the Cheon-a-seong signal, and move back while the chuin and arrows are collected. Then, when the virtual enemy reaches near the combat wagons, soldiers of all branches surround the wagon and fight the enemy.





"If the signal gun is fired once, the drum is hit slowly, and the blue, red, and white daegi (big flags) point in three directions, all three generals of combat wagons, cavalry, and infantry respond. When the drum is struck very quickly and the Cheon-a-seong bugle is blown, the combat wagon soldiers push the cart, and the infantry sticks to the cart, and the cavalry behind it are divided into left and right wings and run like a couple of mandarin ducks. Beat the drum quickly, blow the Cheon-a-seong bugle continuously, shout, and go ahead to fight. At this time, when the enemy enters the ambush zone in front, ring the brass handbell urgently and wave the sunshigi (patrol flag). Then the ambush assault soldiers charge the enemy on the side, and the enemy will be defeated."

When the enemy approaches, the combat wagon soldiers push the combat wagon forward to press the enemy, and the infantry stick to the wagon to cover it. At this time, the cavalry in the back are divided into two lines and run to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combat wagon to attack the enemy as described in the previous quotation.

It also shows that while they continue to fight with the drums beaten and trumpets blown continuously, the ambush soldiers deployed in the front rush from the enemy's side and make a surprise attack. There appear various flags such as daegi and gochogi, and I will talk about the types and operation methods of these flags, and how to use the drum at the end of this lecture.

After defeating the enemy's attack, they form the battle formation and return to the position where they were first pushing and attacking the enemy. If the enemy attacks our military again after returning to its original position, they will respond with actions of counteratt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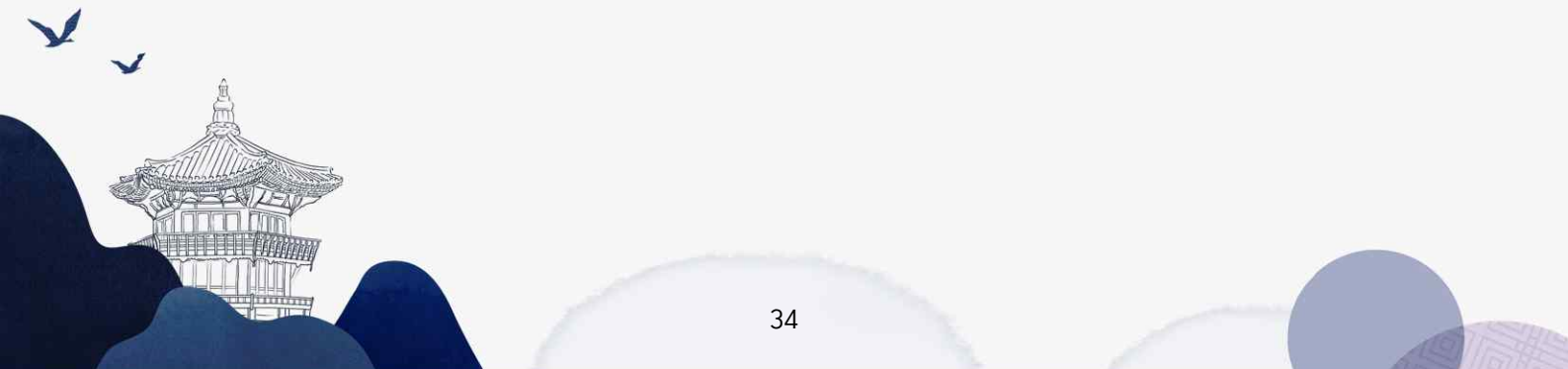
Specifically, soldiers at the back run out from where they were hiding and pretend to be defeated to lure the enemy back to where the other ambush soldiers are hidden, and the ambush soldiers run out and make surprise attack, while the retreating main unit turns to attack the enemy. When the enemy is defeated, the combat wagons and the soldiers break their formation and retreat to where they first formed their lines.





Upon returning to the camp, the merits and faults in battle are reviewed, those who are meritorious are rewarded, those who made mistakes are punished, and the small-scale combined training is finished.

This class, we looked at Geogibohapjosojeolmok (Small-scale Combined Training). In the next class, we'll talk about Geogibodaejeolmok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6-3

Explanation of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In the last lecture, we looked at Geogibohapjosojeolmok (Small-scale Combined Training). In this session, we'll explore Geogibodaejojeolmok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Let's take a look at the main content of the final chapter for training procedures,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which summarizes the procedure for daejo, large-scale military operations. The general idea of the training procedure was mentioned in the last session, but let me briefly summarize it as follows.

First of all, they hang a sign to announce the training the day before, and on the day of the training, the soldiers go to the training ground and line up. Combat wagons and artillery stand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ground, and the infantry are lined up next to the combat wagons. Then cavalry enters to line up horizontally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jangdae, the reviewing stand.

After the soldiers line up and the commander-in-chief enters the ground, all commanders under jung-gun kneel down and greet him with courtesy. When the commander-in-chief sits on jangdae, all commanders below jung-gun gather in front of him to receive the order. When the command is issued, the commanders step down and deliver the command to their geojeong, the combat wagon commander. They then make the sitting soldiers rise, climb up the horses and prepare themselves for combat training.

To begin the training, cavalrymen, jung-gun, flags and drums, the cavalry with combat wagons and their soldiers, and infantry march one after another, and when they arrive in the middle of the training ground, a fictional enemy ambush occur from behind. Then, chotammabyeong, the reconnaissance on horseback at the rear of the formation waves a flag to inform them of the enemy ambush.





On the flag signal that the enemy has appeared, the soldiers turn to face the enemy. They hit the drum quickly and blow the bugle, and the geojeong drive combat wagons and artillery to the front and line them in Ilja-jin (a horizontal line formation) in front of them. Ilja-jin is formed to prevent the enemy from attacking our camp. The cavalry then enter the combat wagon formation to line up and prepare.

Then, ambush soldiers are hidden in the front and back of the camp to make a surprise attack. After making formation, the soldiers take a rest and wait, and when the virtual enemy carry out an all-out attack, they begin the full-scale combat training. The following description shows well each branch of soldiers in battle.

"When the enemy brings a large group of soldiers and reaches within 100 steps, shoot a signal gun once and blow a conch horn. Then, each soldier stands up and puts the red gochogi (red signal flag) five steps in front of the combat wagon, and when they blow Danpagae (short and then long blow of bugle), both the musketeers of each wagon and changchongsu (staff-musketeers) of the infantry line up. They make a volley fire at a blow of Cheon-a-seong, and step back at the brass handbell sound."

When the enemy attacks and reaches 100 steps in front of the formation, the musketeers of combat wagon squads and infantry come out and fire at the enemy all at once.

Changchongsu is interpreted in the annotation as a 'gunman who shoots the seungja-chongtong (a kind of hand-cannon), and a musket.'

The term 'chang' here refers to Kuai Qiang (fast-gun), a small firearm of the Ming Dynasty, which is a 60cm personal firearm with short barrel attached to a 1-meter-long cudgel. You can put 20 lead bullets in it and after shooting all the bullets, you can use it as a cudgel. Danpagae means to to blow the bugle somewhat long after a pause.





After the muskets are fired, they shoot fire arrows, crouching-tiger cannons, and breech-loading swivel guns at the same time. If the enemy comes within 50 steps, or 60 meters, despite the bombardment of fire arrows, breech-loading swivel guns, and crouching-tiger cannons, archers go forward, line up and shoot their arrows. If the enemy continues to advance despite the continuous shooting of the archers, they will now engage in a full-fledged close-up battle. The following material illustrates this well.

"If a signal gun is fired once, the drum is struck slowly, and the flags of navy, white, and red point in three directions, all three generals of combat wagons, cavalry, and infantry respond with in-gi (acknowledgement flag) and give orders to their soldiers. When the drum is struck very quickly and the bugler blows Cheon-a-seong, the artillery is set apart, and the combat wagon soldiers scream. The combat wagon soldiers push the cart and the infantry yell and fight, while the langxianmen block the enemy's horses and spears, and the shielders cut the horses' feet with the sword. The spear-swordmen hit the horse in the head or stab it in the stomach, and the ranseurmen spear up the enemy in the neck and spear down the horse in the eye. The cudgel-gunmen use the shaft of their weapons as a cudgel after the shooting. Generally speaking, the assault soldiers are allowed to use whatever tactics when they are in the formation. The porters carry cheval-de-frise, positioned between the two carts, and follow the cart going forward and back, doing their duties."

As I mentioned earlier, each soldier's movements in close combat are well demonstrated. What's interesting is how close combat soldiers hold back the enemy cavalry. You can see that it presents very detailed description, with the langxianmen blocking the horse, shielders cutting its feet, spear-swordmen hitting its head or stabbing its stomach, and ranseurmen spearing the enemy in the neck or the horse in the eye.

In addition, cudgel-gunmen, who hold the cudgel-musket with a small firearm attached, turn the handle and hit with it like a cudgel to stop the enemy. The helper soldiers, the porters, are also seen holding back the enemy cavalry from rushing in, with a cheval-de-frise, an obstacle to the horse. Geomajak (cheval-de-frise) is a portable iron barrier to prevent cavalry from charging, with several sharp spears tied up and standing up.



This type of defensive weapon is called a geoma or hangma. While geomachang or geomamok are made of wood and have iron blades attached on top, geomajak is made entirely of iron. When the combat wagon soldiers and infantry stop the enemy, as described before, the cavalymen are divided into left and right wings, running forward and attacking the enemy from the side.

The cavalry would have used various types of melee weapons such as flails, swords, guandaos, double swords and hook spears, when they were in close combat with the enemy. When the cavalry charge and push the enemy to the front where hidden soldiers are ready, they rush from the side at the signal of daegi and sunshigi, and defeat the enemy in ambush.

After winning the battle, each branch of soldiers organize themselves and take dozens of steps back to organize the whole troops. If the enemy attacks again on the way back, they counterattack, and pretend to be defeated, luring the enemy to where another ambush is prepared. After defeating the enemy again, they return to their first encampment and set up bangyeong, a square camp.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process of making a square camp.

"Jung-gun said, 'The hidden enemy lost and retreated, but soon they will bring more soldiers to hit our troops. The terrain is flat and wide, so we should set up a square camp and be prepared to face the enemy,' Hit the edge of the gong to ring it, and set up the flags to mark the inside and outside. When the drum is beaten slowly and then quickly, and the bugler blows Padaeo (formation building) signal, all the combat wagon soldiers build their camps outward in the color of the corresponding direction, and the infantry stay close to the combat wagons, and the cavalry rush inside on horseback and set the inner camps. When the gong rings, the bugle stops."

After jung-gun suggested building the square camp, bearers of various flags are sent to proper places to build the camp, and stand at bordering points to mark the inside and outside. Then, following the signal, the combat wagons and infantry build outer camps and cavalry come in to build inner camps.



Because Yeonbyeongjinam doesn't have any illustration of bangyeong, it is hard to find out what it looks like in detail, but if you look at 'Basic Lines of Entry for Five Directions' in Byeonghakjinam (Guide to Military Science), you can see that gochogi (red signal flags), obang-gi (flags of the five colors representing five cardinal directions), and gakgi (flags for positioning) positioned at the bordering points for the square camp.

After setting up bangyeong, the reconnaissance horsemen and the ambush soldiers are sent out to all directions of the camp and the rest of the soldiers rest in camp. Now, they are given the situation where the enemy ambushes in the front, and the reconnaissance, who went out to the front, waves the yellow flag to signal the ambush.

With this alert, the commanders at the front deliver orders, and the soldiers get ready for the battle. When the enemy reaches 100 steps in front of bangyeong, they fire muskets, hand cannons, fire arrows, and cannons according to the signal. When the enemy reaches near the combat wagons despite the firing of various firearms, they engage in close combat as described earlier.

Next, the training continues in the same way as the front procedure, assuming that the enemy appears one after another in the east, west, and north directions of the square camp as well.

Then, they are given another situation that the enemy forces are trying to attack the four sides simultaneously, and the reconnaissances from each side warn them. Jung-gun gives orders, and as I mentioned earlier, the soldiers fire muskets, and so on, and when the enemies get closer, they fight in close combat and defend the camp.

After defeating the enemy, they return to the camp and send out the so-called chogeupbyeong (supply soldiers) to get firewood and water. The cavalymen in the inner camp then go out of the camp, water the horses and return in line following the signal.



After setting up the square camp and completing the training for each direction, they stand up, arrange the formation, and get ready to uncamp the bangyeong and retreat to the place where they originally departed. They march according to the departure signal and return to the ground where they first started training and line up.

Upon arriving at the training ground and all the soldiers line up, jung-gun reports to the commander-in-chief that they have completed the training and let the soldiers rest. Finally, Sujagi, the flag symbolizing the commander-in-chief is lowered, which was set up on the training ground, after which the commander-in-chief rides away. Then, they break up the formation and the soldiers are dismissed. This is the end of the large-scale training.

In this session, we looked at Geogibodaejojeolmok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In the next session, we will look at the structure of the combat wagon adopted by Han Gyo.





6-4 Structure of the Combat Wagon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Geogibodaejojeolmok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the structure of the combat wagon. The last part of Yeonbyeongjinam, 'Jeonchaje (Combat Wagon System),' elaborates on the shape of the combat wagon that was operated with the tactics of this book in detail. This combat wagon system was developed by Jeong Junbung, a military officer of King Seonjo's reign and the jubu (records keeper) of the Military Training Office, and was improved by Yu Hyeong, who was a bukbyeongsa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 Let's take a look at the details of the combat wagon.



"Erect a pillar on each of two wheels at the outside of the wheels and on the axle, and sharpen the top of the two pillars to make tenons. Bore holes at both ends of a wooden rail and insert the tenons in the holes, to make them long out of the holes, but the two pillars should be in the middle. Bore another pair of holes at the lower part of the pillars, where they are nearer, to make them face each other. Sharpen both ends of another wooden rail to make tenons, and insert them into the holes. Cover both the top and bottom of the rails with boards of about one chi (3cm) thick, and always make sure to use hard wood. Bore six holes in the rail, which are the grips for the swords and spears, which go through the holes from the front and tied to the rail behind the cart. In addition, bore three holes in the lower board to install guns and cannons, and bore another hole behind the two pillars to install a thill each, at the same height as the wheels. Add long crossbars at both ends of the two thills, and use these to push the cart. Add another crossbar at the middle of the two thills, to tie the handles of the swords and spears. Bore a hole on the lower end of each pillar and the bottom middle surface of the two thills and add support. The cart must be high and wide enough to protect the soldiers behind, and the height of the window hole must also be suitable to stop the horses of the barbarians. And next to each pillar, attach a small hinged door to be used to protect our soldiers fighting next to it. When widening the formation, the door can be opened to enlarge the wings for added protection from enemy's bullets and arrows, and when fighting a blood battle at a short distance, the door is removed and the wings are folded to make it convenient for fighters to pass. The number of soldiers is shown previously, and about the system of the gun carriage, Lianbing Shiji has description about it, but sometimes it is okay to imitate this."

Here, you can see that combat wagons have a structure in which shields are placed on the left and right sides to prevent enemy attacks, windows are installed, and when they open up their formation, they open the doors to the combat wagons and use them as shields. In addition, six holes were drilled in the rail to mount spears and swords, and three holes were drilled in the rear rail to mount guns and cannons.





As we saw earlier, when the enemy approached, they fired artillery such as breech-loading swivel guns in the combat wagon along with the muskets, and advanced toward the enemy and attacked them. In other words, they placed combat wagons outside the formation, fired artillery to weaken the enemy, stopped the enemy's charge with spears and swords, and engaged in close combat.

In addition, cavalry was placed inside and charged to attack the enemy. The basic system was based on Qi Jiguang's Lianbing Shiji, but it shows a very distinctive pattern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Joseon in the early 17th century when it was threatened by northern Jurchens. The strategy of operating combat wagons of Yeonbyeongjinam was not adopted immediately, but in the late Joseon Dynasty, various tactics of operating combat wagons or artillery launchers were developed to respond to the threat of Qing. This has not been well known until now, but after the Manchu Invasion, there has been a widespread perception that it was effective to use combat wagons or artillery launchers to cope with the excellent cavalry of the Qing.

In 1673, just before King Sukjong's accession to the throne, the situation of the Qing China was worsened by the so-called Revolt of the Three Feudatories, caused by the three lords, including Wu Sangui, and in Joseon, Yun Hyu, the leader of the Southerners, led a group of people insisting on the northern expedition, taking advantage of this. Yun Hyu suggested using a small combat wagon that had shields set up around the cart and weapons loaded in it, with soldiers at the front and back pushing and pulling it.

But Heo Jeok, the Chief State Councilor, disagreed with him and argued that artillery launchers equipped with large amounts of small firearms such as muskets should be manufactured first. In 1679, the 5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at Yeolmu, a large-scale military exercise conducted in Noryang on the bank of the Han River, dozens of artillery launchers were used to set up separate formations and demonstrated shooting. Noryang was not today's Noryangjin, but a sandy beach across from Noryang, which is generally today's Ichon-dong area of Yongsan.



The discussion of the designs of combat wagons and artillery launchers and tactics to operate them continued into the 18th century. For example, in the 1710s, a petition was submitted, proposing a large one-wheel solo combat wagon that could accommodate three people across the width of 4 cheok and 5chon (135cm), and 14 people along its length of 15 cheok (450cm) divided into 6 sections. The combat wagon is equipped with no, a large mechanical bow or cannons, and the upper part is covered with raw leather roof to prevent arrows.

From then on, various discussions on combat wagons and artillery launchers continued, and they were actually produced in various military camps in the center, such as Geumwiyeong (Capital Garrison), and in many provinces. In addition, Byeonghaktong (Mastery of Military Study), a military book made by the royal commission, in the late 18th century during King Jeongjo's reign and which unified tactics in the late Joseon Dynasty, confirms the existence and operation of artillery launchers equipped with cannons.

Man-giyoram, published in the early 19th century, shows that the three military camps in Hanseong had artillery launchers, 121 in Hullyeondogam, 56 in Geumwiyeong, and 51 combat wagons in Eoyeongcheong (Royal Guards). Eoyeongcheong had not only one type of combat wagon, but also had various types, including 20 double-wheel combat wagons and 26 single-wheel combat wagons, in addition to 5 five-wheel combat wagons.

In other words, although Yeonbyeongjinam was not adopted as the main military book of Joseon, not only was it discussed as the prototype of tactics using carts such as combat wag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but also various attempts and adoptions based on it were made. We can tell that the significance of Yeonbyeongjinam on military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s greater than expected.

This session, we looked at the structure of the combat wagon. Next session, we will look at the military signa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6-5 Military Signals of the Late Joseon Period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the main contents of Yeonbyeongjinam through the details of the actual data. This session, at the end of this lecture,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various military flags frequently mentioned in Yeonbyeongjinam.

We have learned from the quote that various flags were used, and that the military was operated to cope with various situations through flags and various instruments used together.

There have been quite a few scholarly reviews about the instruments used in the milita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relation to Korean traditional music, but not enough review and introduction were made for military flags of the Joseon Dynasty. Most of the work was a brief introduction of flags shown in some banchado (a documentary painting of the royal family). Even the type, role, and system of flags were not well known.

In this situation, Gije (Flag System), a book on various military flags us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found in the Osaka Prefectural Library in Japan in the mid-2010s, which was photoprinted by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of Korea University and presented to the public on their website, and the interest in military fla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s increased.

The use of military flags and instruments to signal is closely related to changes in war in the 16th century. In the cas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late 16th century, all the major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war used gunpowder weapons in full scale and they were very powerful. This naturally led to a sharp increase in gunpowder use.

With the full use of gunpowder weapons, battlefield noise grew louder, to a different level than before. Therefore, the mass operation of flags, a means of visual signaling, was inevitab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were more than 10 kinds of flags, including flags of each unit such as ingi, flags for battle formation, flags for signals, and other flags, with which they were able to command the troops effectively.



The unit flag, ingi, was made with the color of the corresponding direction in the middle, and according to the Five Elements, the center was yellow, the front was red, the left was navy, the right was white, and the rear was black. For example, the ingi of the Jeonyeong-jang, the commander of front camp, is red with blue trimming.

Obanggi (flags of five cardinal directions) and gochogi (red signal flags) are representative flags for signals. Obanggi was also called daegi (big flags) because it was large. Obanggi is five cheok (1.5m) in length and breadth, and in the center is a picture of a dragon, a tiger, etc. The background color follows the color of corresponding direction, and the trimming has a contrasting color.

In general, depending on the animal drawn in the center, they are sometimes called the Blue Dragon Flag, Vermilion Bird Flag, White Tiger Flag, Black Tortoise Flag, or Ascending Snake Flag. Gochogi is a flag used to operate in conjunction with obang-gi to make certain movements of the troops in the corresponding direction, whose shape is 12 cheok (3.6m) in length, and the color depends on the corresponding direction. For example, if you move both obang-gi and gochogi in the corresponding direction, all the units in the direction will act according to the signal.

In addition, there were also other flags for signals needed to carry out additional duties, such as dangbogi and yeonggi. Dangbogi is a flag carried by the dangbo unit, scouts who move forward, and it is a yellow flag of 1 cheok (30cm) in length and breadth, attached to a nine cheok (2.7m) spear. Yeonggi is a small flag that must be carried when receiving a command and is necessary for entering and leaving the camp.

The flags for battle formation are mainly used to build bangyeong (a square camp), to determine the size of the camp and the location of the entrance. Mun-gi and Gakgi are the representative flags for formation. Mun-gi is a flag placed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entrance in the middle of each side of the square, and the military camp in Joseon was required to make an entrance on each side of outworks and one in the south of the inner wall.



Therefore, a total of 10 mun-gi were to be prepared, and the size was 5 cheok (1.5m) in length and breadth with a 12 cheok (3.6m) long flagpole. In the center, a winged tiger is drawn, and the base color follows the color of the direction.

For example, the one placed on the central wall is yellow in the center, and they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hwangmun-gi (yellow entrance flag). Gakgi is a flag that stands at each corner when building the outworks of a square camp. For example, at the southeast corner, a namdong (south-east) gakgi is erected toward the south and dongnam (east-south) gakgi is erected toward the east.

Gakgi is 4 cheok (1.2m) in length and breadth, and the flagpole is 12 cheok (3.6m) long. In the case of namdong gakgi, the red symbolizing the south is at the top, and the navy symbolizing the east is at the bottom. And the colors of dongnam gakgi is reversed. As we saw earlier, in order to build a square camp after the battle, various flags were sent to the corners of the camp or at each point where the entrance was to be installed, and soldiers were deployed accordingly.

A good illustration of this is the 'Basic Lines of Entry for Five Directions' in Byeonghaktong (Mastery of Military Study), or Byeonghakjinam (Guide to Military Science). According to this drawing, obang-gi stands in the middle of each side of the outworks and gochogi is erected in the middle of each side of the inner wall when bangyeong is built.

The flag also has signals for actions to perform, and the flag signals and corresponding actions in the document are summarized in this table.

On the other hand, hitting a drum basically means moving, and there were many ways to hit a drum for signal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slow beating of the drum is called jeomgo, which means to move 20 steps at one beat, about 25m. Beating a drum faster than jeomgo is called gin-go, which means to move one step per beat, or 1.2m. If you beat the drum very quickly, you are beating noego, which means to go ahead and fight.



As we saw earlier, when the enemy approaches the combat wagon, each branch of soldiers fights around the combat wagon. When you shoot the signal gun and hit the drum, point the three daegi of blue, red, and white, to three directions and lift them up again before reaching the ground, all three commanders of combat wagons, cavalry, and infantry repeat it in response to the signal of daegi.

And then at the signal of noego and Cheon-a-seong, they attack the enemy. As such, the military signal system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so diverse and sophisticated that it was able to cope with the chaotic situation of the battlefield.

You've probably seen a lot of different flags and musical instruments used in the battle scenes of many Western war movies, in which the soldiers moved accordingly. I'm afraid that Korean movies has not reached this level yet.

Of course, this lack of historical research is supplemented by excellent plots, which is a big advantage of Korean films, but war movies might be more globally recognized like films of other genres if it has more accuracy of battle scenes. Someday, I hope that various flags and chwita (military band music) will be properly reproduced corresponding to the combat situation in the battle scenes of Korean movies related to major wars in the pre-modern era, presenting greater spectacles.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main contents, each type of soldiers and carts in Yeonbyeongjinam, and the types and usage of military signal flags.

In the last lecture, we have explored various facts related to Yeonbyeongjinam, including the background of its publication and the life of its author, Han Gyo. I'm sure that you've been introduced to the military books, military science, and tactics in Korean history for the first time and had a lot of thou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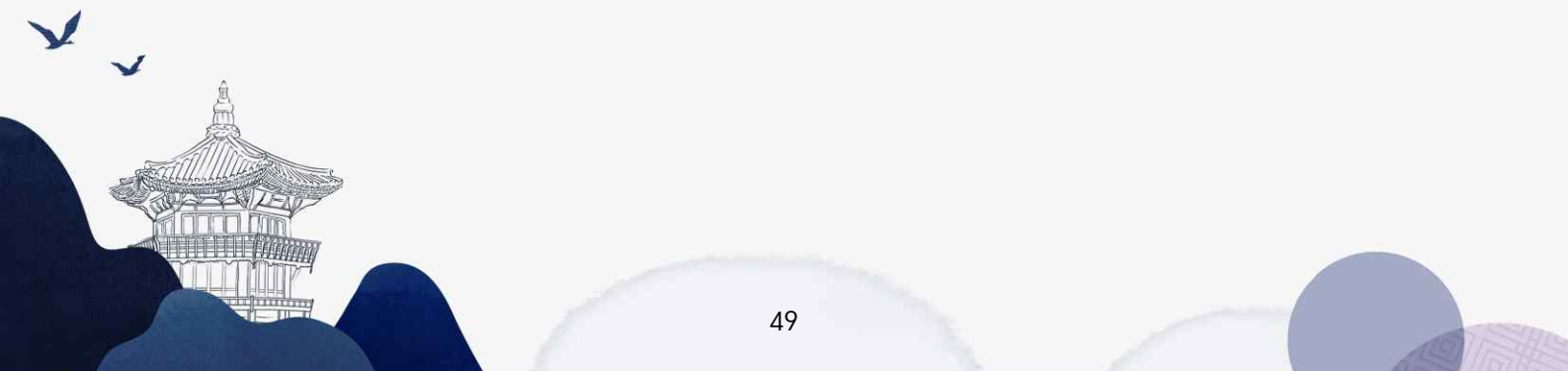
In general, you would not have been fully informed of the existence of military science in Joseon, and you might have had the preconceived notion that there were not much proper military force in Joseon.



However, it is not possible for a nation to remain independent for more than 500 years without the support of military force of significant level. In other words, the long-term continuation of the Joseon Dynasty was not possible only with the power of politics or diplomacy. It means that it had a significant level of military power and socio-economic capacity to support it.

Although the last two lectures were not enough, I hope you have been able to obtain a different view of Joseon's military capabilities than before. In the future, if you look at Joseon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you will be able to get more enriched and diverse understanding of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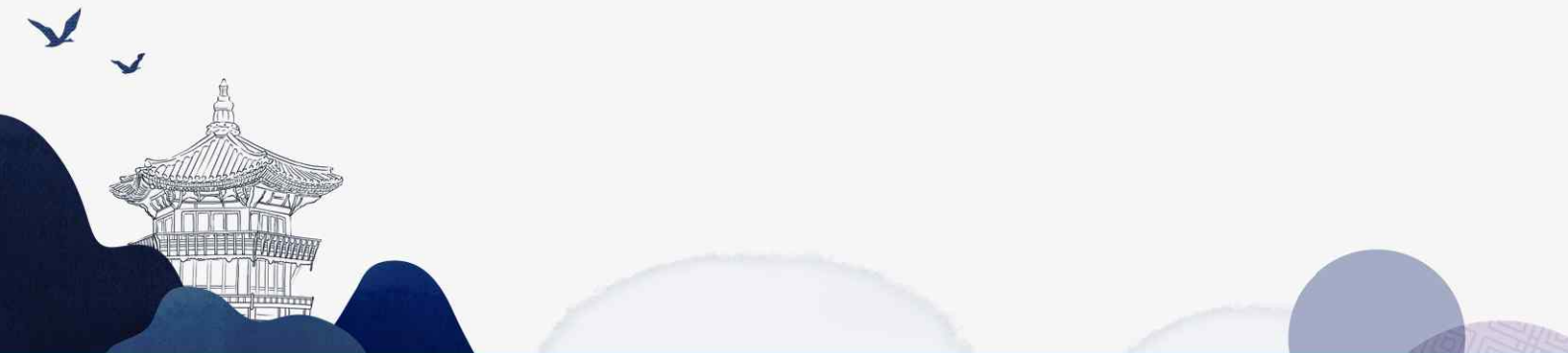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This concludes my lecture on Yeonbyeongjinam. I appreciate your paying attention to my two rather elusive lectures.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6周

解读《练兵指南》

6-1

对于“车骑步队伍规式”的说明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练兵指南》课程主讲的卢永九。这节课是我们的第六节课，以“解读《练兵指南》”为主题。

在上节课中，我们学习了《练兵指南》的出版背景和体裁，以及这本书的内容概要，还有这本书的作者韩峤，以及他的朝鲜中期军师学家和性理学家的身份。

虽然《练兵指南》这本书之前曾经一度默默无闻，但是，从这本书的出版可以看出在壬辰倭乱以后，朝鲜积极地引入中国兵书，为朝鲜的军事学发展，以及抵抗北方的女真骑兵，所做出的各种各样的努力。

并且，我们知道了，这本书在军事史方面的重要性，在之前一直没有被提及，也和朝鲜后期奉行的以城郭防御为中心的消极防御政策有一定关系。尽管《练兵指南》的内容量不是很大，但是其中包含了大量的历史背景和内容，使人感到即使是一份很小的资料也不能忽视。

这节课，我们将阅读《练兵指南》的主要内容，掌握作品的具体内容，及探究其背后的意义。

上节课我们提到了，《练兵指南》大致可以分为四个部分，分别是“车骑步队伍规式”，“车骑步合操小节目”，“车骑步合操大节目”和“兵车制”。我们这节课先来看看“车骑步队伍规式”这部分内容。

正如上节课我们提到的一样，在“车骑步队伍规式”中，详细地记叙了以下内容，包括指挥一个车队的车正的作用，由12名的枪手，杀手，弓手和马兵组成一队，是以战车为中心进行的队伍编制，还有各兵种的士兵们的位置，以及战斗时具体的作用和行动的要领。

车正是1辆战车和这部战车的士兵的下级指挥官。每辆战车由36名的士兵组成的，即如果有三个队组成了一个旗，那么旗的总指挥旗总就是车正；如果由一辆战车和12名士兵组成了一个队，那么队的总指挥队长就是车正。首先，对于由10名鸟枪兵组成的枪手队这个基本单位的编制，以及在战斗时各士兵的具体行动，在《练兵指南》的具体叙述内容如下所示。



“在一个枪手队中有8名士兵站在车的后方，以便敌军在远处时，可以使用鸟枪进行射击，如果敌军靠近的话，会将这些士兵分为两番，每番4人，其中，有4人负责推车，而另外4人则负责拿上全部的鸟枪。还有2名舵工，分别位于两个轮子旁，当敌人在远处的时候，他们和另外8人一起拿起鸟枪射击，当敌军试图靠近时，他们会把鸟枪交给负责拿枪的那个番，然后拿起扁头大棒，边保护车轮边前行。如果战车陷入了坑中，他们就会把车从坑中用力地抬出来，如果敌军靠近的话，他们就用棍棒攻击敌军。一名火兵拿着拒马柞，在两辆车之间，根据战车的进退而移动。

即，枪手由队长和火兵各1名，（鸟）枪手10名，共12名士兵组成。一般是以1辆战车和一对枪手构成战斗的基本单位。在10名鸟枪手中，有2人兼任了舵工的职能，负责车辆的使用。当敌军在远方的时候，则10名鸟枪手一起出来使用鸟枪进行射击。

所谓鸟枪连续射击，就是每次会有2名的士兵出来向前，进行射击，然后再回到自己的位置上。上述过程会重复5次，这就是连续射击的方式。除了鸟枪射击之外，如果敌军靠近的话，会将10名鸟枪兵中的8人分为两番，每番4人，其中一个番负责推车前行，而这4个人会把自己的鸟枪交给另一个番。

剩下的2人负责控制战车，把鸟枪交给旁边的鸟枪兵，拿起扁头大棒，这是一种挂有扁扁的刀片的棍棒，使用它们来守护战车的轮子，轮子是战车中最重要的部分。并且，当战车在前进的过程中，出现因轮子陷入坑内而无法移动的情况时，可以用扁头大棒有效解决。

接下来，我们一起学习一下，由和战车一起前进，进行近距离战斗的杀手组成的杀手队的编制，以及在战斗时各士兵的具体战斗动作。

“每队杀手中由2名的藤牌手组成第一对，2名的篋笏手组成第二对，接着是4名的刀棍手组成两对，最后是2名的钹手，组成一对。一队杀手会被分为两仪，分列车的两边，两边前面分别各有一名藤牌手和狼筅手，分别组成一对。他们的后面是2名刀棍手，组成一堆，最后是一名钹手，站在后方。如果敌军靠近的话，狼筅手横着拿枪，负责阻挡敌军的马，藤牌手拿刀攻击马脚。刀棍手有时会打马的头部，有时会刺马的肚子，钹手则会刺向敌军的脸部。

作为近战士兵的杀手，在《纪效新书》中第一次出现了这个名称和相关的制度。根据《纪效新书》的记载，在一队共12名的杀手中，队长和火兵各1名，在10名的士兵中，最前面有2名藤牌手，然后有2名狼筅手，接着有4名长枪手，最后有2名钹手。藤牌手在最前面，依次站成两列纵队，形成战斗队形。



杀手队的基本战斗队形是鸳鸯队，分列2列纵队。中央队的队长立于鸳鸯队最前面，2列纵队分别按照藤牌手，狼筅手，长枪手和镋钯手的顺序进行配置，火兵列于队伍的最后。是因为这个队形像关系很好的雌雄鸳鸯鸟一样比翼双飞，所以得名鸳鸯队。

但是《练兵指南》中提到的杀手队的编排，其原形和《纪效新书》和《练兵实纪》都有所不同。虽然在杀手队中对于藤牌手，狼筅手和镋钯手的配置规模和位置编排都一样，但是用4名的刀棍手取代了4名的长枪手，这是其独有的特点。

刀棍手是装备了夹刀棍的士兵。上节课我们也学习过，刀棍的长度为5寸，武器为4两，把柄的长度为7尺，约合1.4，是一种带长刀的窄枪。这是步兵在对抗骑兵的时候经常使用的短兵器。这个武器像长枪一样，是长度为3m的偏长的短兵器，其缺点是很容易被磨损或折断，北方女真骑兵大举压上发起突击的时候，很难用此武器抵抗骑兵。

但是，窄窄的大棒或像夹刀棍这种带刀刀的窄枪，长度虽短，但是使用起来很方便，不容易折断，便于抵挡其他兵器的进攻。装备了夹刀棍的步兵被称为刀棍手，他们在和骑兵对抗的时候，用夹刀棍的刀刃刺向敌人的马，使敌人落马。然后用刀砍向落马的敌人，这个武器在战斗现场非常有用。

韩峤在《练兵指南》中记叙的“杀手队”，与《纪效新书》和《练兵实纪》记叙的杀手队不同，没有使用4名长枪手，而是使用了4名刀棍手取而代之。从用4名刀棍手代替长了枪手这点可以看出，《练兵指南》这部兵书作品的内容明显是为了对抗北方骑兵而使用的战术。

藤牌是指，站在鸳鸯队最前方的藤牌手拿着的用藤木制作的，轻巧坚硬的圆形盾牌。藤牌是以经历了长时间生长的藤树树干作为原材料的一种武器，一般会截取手掌大小的木材，卷成圆形，用竹皮等材料进行细致的包裹，将其固定。中心部分向外突出，里面是空心的，即使有多支箭飞来，也不会伤到手和手臂，

藤牌中央凸起的部分，贴有一个名为“鬼头”的鬼神装饰物。因为中国的南方地区盛产藤树，所以藤牌在这个地区得以广泛使用。藤牌手除了腰刀之外，还会随身携带镖枪，如果战斗开始的话，拿着藤牌的左臂会挂上腰刀，会用右手投掷镖枪。在用镖枪攻击了敌军之后，他们会拿起盾牌，挥舞腰刀，再次攻击敌军。



狼筈是一种通过在带有竹枝的竹子前面悬挂枪矛而制成的枪器，戚继光将其作为制式兵器，从而使其成为了广为人知的一种武器。使用狼筈时，如果贴着竹枝旋转枪的把柄，可以对飞来的箭起到反射作用，所以是一个在防御和攻击两个方面，都起到独特作用的武器，

狼筈手位于防牌手之后，一共有2名。狼筈的长度是1丈5尺，长约3m，重量为7斤，分为竹狼筈和铁狼筈两个种类，这个武器非常之重，所以狼筈手需要具备良好的体力。

位于最后的铙钯手，其使用的铙钯，是一种由3个枪矛组成的枪器，长为7尺6寸，重量为5斤，中间的枪矛比两侧的枪矛要长2寸左右。铙钯还可以用作发射火箭的发射台，在左右枪矛中间平坦的区域，可以装上火箭，点火发射。有3个枪矛的铙钯，不仅可以有效地阻挡倭寇的刀刃，还可以有效地击落北方的骑兵。

使用弓矢（即弓和箭）的弓手队，也是在这本书的主要参考资料《纪效新书》和《练兵实纪》中没有出现的兵种。下面是弓手队的战斗面貌。

“当敌军入侵刀50步之内的时候，一队弓手就开始射箭。如果敌军靠近的话，队伍就会分列成两仪，跟在杀手后面，协助作战。所有人都佩戴长刀，是为了在箭全部射完之后，和敌人决一血战。”

如果敌军进到百步之内，即120m的范围之内的话，如我们前文提到的那样，就会开始鸟枪射击，如果进入到50步之内，即60m的范围之内的话，弓手也会开始射箭。一步长约1.2m。如果敌军继续靠近的话，杀手就会站在战车的左右两侧，弓手也会协助杀手，进行近距离战斗。在这个情况下，使用的是两仪阵这个阵型，所谓两仪阵，就是2列纵队的鸳鸯阵，分成两伍，每伍各5人的阵型。

此时，枪手们推着战车前进。弓矢是朝鲜传统的武器，在16世纪中旬，从日本引入新型的火绳枪鸟枪之前，朝鲜就拥有角弓和片箭等优秀的弓矢武器，从战术上看当时的朝鲜要比日本拥有更大的优势。但是，在壬辰倭乱这一事变发生时，使用鸟枪进行武装的日本军，有效地化解了韩国优秀的弓矢能力，所以在战争期间，朝鲜致力于炮手和杀手的培养。

1593年，宣祖26年设立的训练都监，最初，将鸟枪兵作为炮手，近战士兵作为杀手，不久之后，也把使用弓矢的射手编排入队，这就是所谓的三手兵体系。



壬辰倭乱以后，射手的占比开始逐渐下降，是因为相较于使用威力较小的弓矢，有必要使用穿透力更强的鸟枪，来抵挡穿戴盔甲进行防护的女真骑兵的突击。

但是，相较于弓矢，鸟枪的发射速度较慢，在经过一轮射击之后，敌军骑兵就已经来到了面前，这个武器也存在着这一问题。为了阻止敌军骑兵的突击，确保鸟枪枪战有充足的时间，有必要使用发射速度较快的弓矢，虽然它的穿透力较弱。由此可知，使用弓矢射击的弓手或者射手在战术上有着不可或缺的重要性。

接下来是由骑兵组成的马兵队的战斗面貌。

“在敌人位于远处的时候，马兵队就会从马上下来，发射三穴枪或弓箭。

如果敌军靠近的话，就会分为左右翼两队，以鸳鸯阵的阵型跑向前，有时会使用鞭棍，长刀，偃月刀，双刀或长枪等兵器，战斗时会发出呐喊的声音。或者在马上使用三穴枪进行射击，根据实际情况，将两仪阵和三才阵进行合并。”

通过这一内容，我们可以知道，如果敌军在远处，马兵会从马上下来，使用三穴枪或弓矢进行射击。如果敌军靠近，他们就会上马，分为左右翼两队，呈两列纵队的鸳鸯阵形式，并以此队形推进，在和敌人的近距离战斗中，使用鞭棍，长刀，双刀，偃月刀和钩枪等武器。

没有进行近距离战斗的时候，因为和敌人还保持着一定的距离，所以可以使用三穴枪进行连续射击的形式，来展开攻击。虽然我们之前也介绍过了，但我还是想再强调一下，三眼枪是一个拥有3个短枪身，下方是木制手柄的小型火器，其3个枪身都可以装满弹药，甚至可以带火射击，且是一种便于携带的火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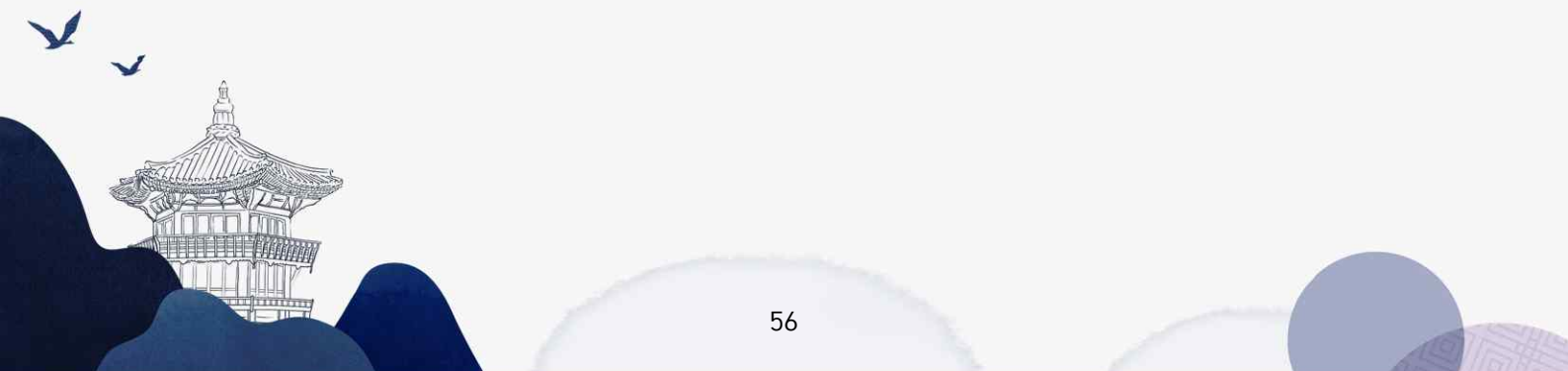
这种武器携带方便，主要是骑兵在使用，因为枪身较短，所以穿透力也比较弱，因此其在朝鲜后期，相较于战斗，主要用于发射信号。

马兵的机动性较强，在使用鸳鸯阵移动的过程中，视实际情况的需要，可以变换为两仪阵或三才阵。三才阵是指，一队分为三个小队，从左右两侧分别对敌人进行攻击的队形。



马兵在和敌人近距离交战的时候，会使用鞭棍等各种随身携带的短兵器，在上一节课中，我们介绍《武艺诸谱翻译续集》中武艺部分内容的时候有提到过相关武艺，大家可以参考一下。

这节课，我们学习了“车骑步队伍规式”的主要内容。下节课，我们将学习“车骑步合操小节目”的体裁和内容。





6-2 对于“车骑步合操小节目”的说明

上节课，我们学习了“车骑步队伍规式”的主要内容。这节课，我们将学习“车骑步合操小节目”的主要内容。

在“车骑步队伍规式”中，介绍了炮手队等各队的战斗方式，而在“车骑步合操小节目”中，叙述了小合练的步骤，即战车，骑兵和步兵一起训练的步骤。

合练的顺序是，在进行军事训练前，车兵，步兵和马兵等兵种的士兵们拿着武器，腾身上马，为了接受命令而列队。在开始训练之前，统筹训练的将领中军在回禀担任指挥官的主将训练即将开始，然后派出敌后兵，视察敌人的情况。在收到敌人出现的警报后，士兵开始准备战斗。如果敌军靠近的话，会按照以下步骤进行战斗。

首先，如果敌军进入了我军布阵的百步范围之内，炮手会站成一排，根据信号一同前进，并且会鸣响天鹅声的喇叭，当喇叭声结束后，他们就开始射击。接下来，根据被称为“起火”的火箭和天鹅声喇叭的信号，拿着铳钹的钹手发射火箭，并且一起发射战车内的火炮。

如果火箭和各种火炮的射击也无法阻挡敌军，敌军还是进入到了距离我方阵营50步的范围之内，这时会开始布局稻草人，也就是所谓的葛人。根据信号，弓手排成一行之后，根据天鹅声喇叭的信号，开始射击作为训练靶的葛人，在完成射击后，完成对弓手队的收归，收缴了葛人和弓箭。接着，如果假想的敌军来到战车前面，以战车为中心，所有兵种的士兵都会以战车为中心与敌军进行交战。

“发射一次号炮，然后会慢慢地击一次鼓，当蓝色，红色和白色的大旗指向三个方面时，战车，骑兵和步兵三个兵种的将领都会予以响应。如果击鼓节奏较快，且响起天鹅声喇叭的话，车兵会推战车，步兵会跟在战车旁，而骑兵则会分居左右两翼，呈鸳鸯阵的队形前进。随着快节奏的鼓声传来，天鹅声的喇叭不断响起，士兵们边呐喊边前进战斗。这个时候，曾位于前侧的前伏兵，重新回到阵内，摇响大铜铃，摇晃巡视旗，伏兵从旁侧进行突击，从而击败敌人。”

如果敌军靠近的话，会根据信号，车兵向前推战车，以压制敌军，步兵在战车旁随车前行，掩护战车。此时，位于后方的马兵们分列战车的左右，排成一行前行，攻击敌军时的面貌如前面引用的文章内容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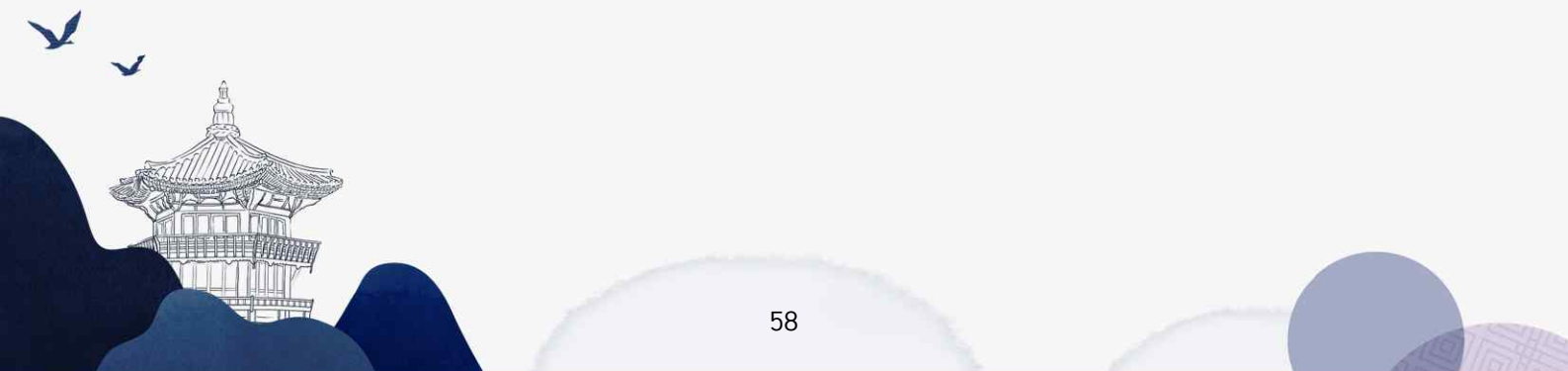
在鼓声继续响起，天鹅声喇叭继续鸣响，边呐喊边战斗的过程中，位于前方的伏兵们，从侧面偷袭敌人，在作品中展现了这些场景。这里提到了大旗，高招旗等多种多样的旗帜，对于旗帜的类型，使用方式，以及梭子的使用方法，我们将在这节课最后的部分，全面地介绍一下。

在击退敌军后，恢复战斗队形，退回到最初开始攻击敌人的位置。回到最初的位置之后，敌军又开始再次攻击我们的士兵，为了应对敌方的攻击，我们的士兵也开始进行攻击。

我们来看一下具体的战术，我们的士兵先假意向外跑，并假装被敌人击退，从而把敌军引入有伏兵潜伏的地方，然后伏兵出动进行快速的袭击，而原本在后退的大部队也开始转向攻击敌军。如果击退了敌军的话，全体士兵会开始收队，退回到最初站好队形的地方。

回到阵营之后，会论功行赏，对于有过错者也会给予惩罚，“车骑步合操小节目”部分的训练就到此结束。

这节课，我们学习了“车骑步合操小节目”的主要内容。下节课，我们将学习“车骑步大操节目”的主要内容。





6-3 对于“车骑步大操节目”的说明

上节课，我们学习了“车骑步合操小节目”的主要内容。这节课，我们将学习“车骑步大操节目”的主要内容。

我们将学习一下，记叙了训练的最后步骤，即大规模调动士兵的训练“大操”的步骤的，“车骑步大操节目”这个部分的主要内容。虽然我们在上节课已经提到过训练步骤的大体内容，但我们再简单地重新整理一下，相关的内容如下所示。

大操的训练顺序如下，首先在操练的前一天要挂上通知训练的操牌，训练当天，军事要去训练场列队。战车和炮车分列在训练场的左右两边，步兵列对于战车旁边，在马兵入场后，会在作为检阅台的将台左右两侧横向列队。

士兵们在训练场进行列队，队长进入训练场后，官阶低于中军的指挥官都要下跪，行此礼来迎接队长。队长在将台上座之后，为了传达命令，官阶低于中军的指挥官都聚集到队长面前，队长下达命令。在下达命令时，指挥官们退下，然后向其麾下担任车正的指挥官传达命令。接着，为了开始训练，原本坐着的士兵起身站立，并且手拿武器，而马兵骑着马，为战斗训练做好准备。

正式开始训练之前，以马兵，中军，旗鼓，属于战车的奇兵队和步兵队这个顺序进行行军，当行军的队列到达训练场的中央时，假想的敌军伏兵将出现在后方。敌军的伏兵出现后，后面的侦察马兵也就是哨探马兵，摇动旗帜，通报敌军的出现。

如果有敌军出现的旗帜信号，士兵们将把大队转向敌军的方向。快速地击鼓，鸣响喇叭，车长们指挥战车在前方摆成横向的一字阵。布局一字阵，以阻挡敌军攻击我们的阵营。马兵们进入的战车阵营之中，摆好阵形，进行准备。

接着，在阵营的前后布局伏兵，如果敌人来了的话，他们可以偷袭敌人。在布好阵后，先让士兵们进行休息，等待命令，等假想的敌军全面展开攻击后，再进行正式的战斗训练。下面我们来看下各兵种的战斗面貌。



“敌军大举压上，进入到百步范围之内后，会发射一次号炮，并吹响号角。全部士兵都起身，向前在距离战车5步的地方插上红色的高招旗，吹响单摆开喇叭，各战车的枪手和步兵的枪铳手全部都排成了一列。如果吹响天鹅声喇叭的话，进行一轮射击，如果吹大铜铃的话，就收队。”

如果敌军用枪进行攻击，并进入到距离阵前方百步之内的范围的话，战车和步兵队的枪手们会一起向前射击，攻击敌军。在谚解本中，枪铳手的释义为“使用胜字铳筒和鸟枪射击的枪手”。

在此处，枪是指大明帝国使用的小型火器快枪，这是一种长度为2尺的单人用短枪身武器，然后和单棍相结合，在长度为1m的棍棒前面放有20个铅丸，在射完弹药之后，可以使用棍棒。所谓单摆开喇叭，是指喇叭声音响一阵子，停一下，并且响的时间较长。

在鸟枪射击后，开始全面使用火箭和虎蹲炮，佛狼机等火器进行射击。在敌军不惧火箭等武器射击，选择继续前进，并进入到50步以内的距离范围，即60米之内时，弓手向前站成一列，开始射箭。如果在弓手连续射击的情况下，敌军还是继续前进的话，那么就会展开正式的近距离交战。下面的资料内容充分地展示了这点。

“发射一次号炮，然后会慢慢地击一次鼓，当蓝色，白色和红色的旗帜指向三个方面时，战车，骑兵和步兵三个兵种的将领都会认旗，对上面予以响应，并把命令传达给下属。如果击鼓节奏较快，且响起天鹅声喇叭的话，炮车就会停下，侦察兵会发出喊声。车兵向前推战车，步兵边呐喊，边前进战斗，同时，枪手拦截敌军的马和挡住敌军的枪，而牌手则拿刀攻击马脚。刀棍手负责打马头，或者刺击马腹，钐手向上刺击敌人的颈部，向下刺击马的眼睛。快枪是（完成射击后）可以把手柄进行旋转，像棍子一样使用的武器。一般阵里如果有杀手的话，使用“大门和小门”，“虚虚实实”这类型的战术也是一个不错的选择。火兵们拿着拒马柵，站在两车之间，跟随战车进退，同时分别执行各自的任务。”

正如我们前面看到的那样，在近距离交战的时候，各兵种们的战斗动作都有一五一十地刻画出来。近战士兵们抵抗敌军骑兵的样子也十分有趣。狼枪手负责阻挡马匹，牌手攻击马脚。刀棍手负责打马头，或者刺击马腹，钐手向上刺击敌人的颈部，向下刺击马的眼睛，像这些细节描写都在作品内容中有所体现。

快枪手拿着装备有小型火器的快枪，可以转动手柄的部分，像棍棒一样攻击敌军。火兵作为辅助兵，负责阻挡马匹，拿着拒马柵，来阻挡敌军骑兵的突击。拒马柵是一种为了阻挡骑兵突击的，便于携带的铁制障碍物，一般会将多个锋利的枪绑在一起，用此设下防护的屏障。



这种形态的防御型武器，一般被称为拒马或行马，拒马枪或拒马木的主体部分是木制结构，在末端带有铁刀，而拒马柞则是全部用铁制成的武器。在侦察兵和步兵们阻止敌军的时候，如上面引用的文段所示，马兵们会分为左右翼两队跑向前，从侧面攻击敌人。

马兵们在和敌军近距离交战的时候，使用鞭棍，长刀，偃月刀，双刀和钩枪等短兵器攻击敌人。马兵进行突击，到达有伏兵的地方的话，伏兵们会根据大旗和巡视旗的信号，从侧面出现，进行偷袭，从而击退敌军。

在战斗胜利后，每个兵种都会后退数十步，然后进行队伍整顿。如果在后退的过程中，敌人再次攻击我军，为了应对来自敌人的攻击，我军需要故意后退，把敌人引入有伏兵埋伏的敌方。在击败敌军之后，回到最初出发的阵营，设置方营。我们来看一下设置方营的整体过程。

“中军禀报，“埋伏的敌军虽然失败后退，但是敌军的气势更胜一筹，一定会来讨伐我军。하였다. 要在地势平坦开阔的地方建设方营，从而来对付敌人。敲击锣边，拿出旗帜，做好内外分解的标识。鼓声由慢变快，吹响摆队伍喇叭，车兵分别按照方位色向外布阵，步兵跟随战车，马兵骑马进入到站内，摆开内阵。锣声响，喇叭声止。”

中军建议设置方营之后，派骑手前往便于设置方营的地方，站在内外分界线处，作为内外分解的标识。接着，跟随信号，战车和步兵布局外侧的阵型，设好外阵，骑兵进入阵内，摆开内阵。

对于战斗时具体的样子，因为《练兵指南》中没有图画，所以难以确认当时具体的样子。但是，我们可以参考《兵学指南》中的“五方旗招先出立表图”，由此可知在方营布阵的基准点处，都插有高招旗和五方旗等角旗。

在方营建好后，方营的前后左右布局侦察马兵“探马”和伏兵，兵营里的士兵们进行休息。如果在前面出现敌军的伏兵的话，位于前面的探马摇动黄旗，以通知大家敌军伏兵的出现。

在听到这个警报之后，位于方营前面的将领将下达命令后，士兵们会做好战斗准备。如果敌军进入到方营前面的百步范围之内，士兵们会根据信号依次发射鸟枪和胜字銃筒，火箭，大炮等火器。如果连各种火器的射击也无法阻止敌军，敌军还是来到战车阵前面的话，那就会开始展开近距离战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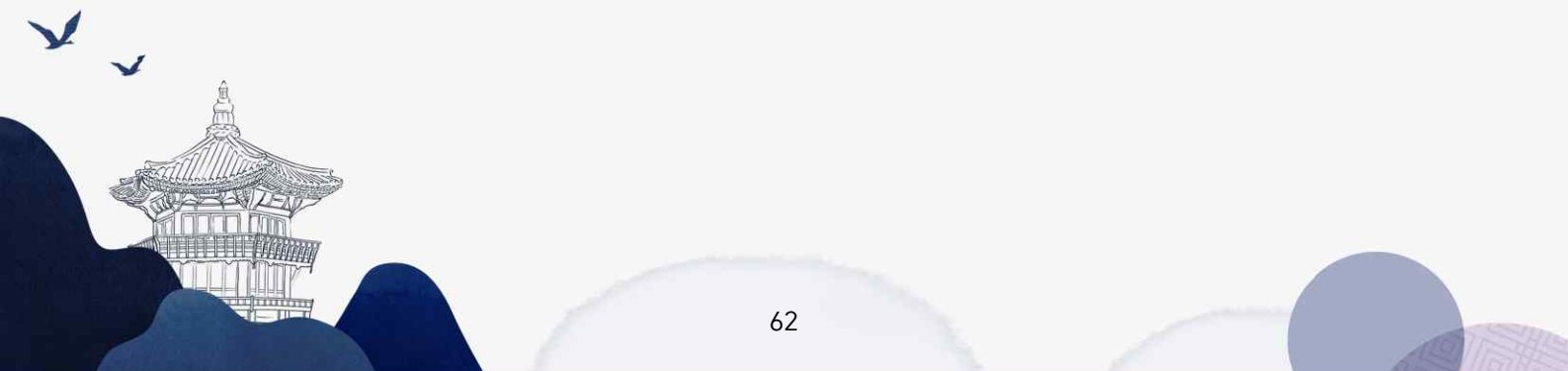
如果敌军在方营的东边，西边和北边依次出现，与敌军在前面出现时，使用相同的方法应对即可。在完成了敌军在军营四个方面单独出现的训练之后，接着会发生敌军在四面同时出现的情况，而四个方面的探马们，也都发起警报。中军下达命令，然后如前面提到过的一样，士兵们开始进行鸟枪射击，如果敌军继续靠近的话，就进行近距离交战来防御。

在击退敌军之后，重新回到阵营之中，为了寻找柴火和水源，派出负责此任务的樵汲兵。接着，位于内阵的马兵们，来到营外喂马喝水，根据信号适时地收队返回。

在建好方营，各方面分别完成训练之后就开始收队，将方营撤退到原来出发的地方，士兵们起身整顿队伍，进行撤退准备。根据出发的信号，开始行军，回到训练场这个开始的地方。

到达训练场之后，全部士兵们列队，中军向队长报告训练结束，士兵们开始休息。在拔下训练场中插着的，象征着队长的帅字旗后，队长从训练场骑马退场。然后士兵们也可以解散了，这象征着大规模操练正式地结束了。

这节课，我们学习了 “车骑步大操节目”的相关内容。下节课，我们将学习韩峤采纳的战车形态相关的内容。





6-4 战车的形态

上节课，我们学习了“车骑步大操节目”的相关内容。这节课，我们将学习韩峤采纳的战车形态相关的内容。

在《练兵指南》中的最后一部分内容“战车制”中，对于这本书中运用的战车的具体形态进行了描写。这部作品中的战车样式，看起来应该是朝鲜时期担任训练院主簿的武官郑峻鹏发明的，北兵使柳珩进行改良的设计。我们来看一下战车的具体样子。

“在两个轮子的外部和横轴的上方，各有一根竖木，两根竖木的下方被削尖成桡。在横木的两端凿有小孔，把桡插入其中，竖木像外伸长延展，使横木位于两根竖木的中间。两根木头的下方相对，凿有小孔，横木的两端被削尖成桡，插入孔中。横木的上方和下方都有板，板的厚度按寸计算，一定要选择坚硬的木材。在横木上，凿有6个孔，这个是为了插入刀枪的桡而设置的，将武器放入和固定于车的后侧横木之中。并且，下层的板子上凿有3个孔，以放置枪和炮，在两根竖木的后方，设置带有小孔的辕木，高度和轮子长度保持一致。两根辕木的尾部有横杠，延长至辕木外部，可以用此来推车。两根辕木中间也有横杠，可以固定住刀枪的把柄部分。两根竖木的下端和两根辕木的中间的下面都有一个孔，是用来放置护板的。车的长度和宽度一定要符合后方的士兵们可以保护车辆这个标准，枪孔的高度要符合可以阻挡女真族的马匹这一标准。还有，在两根竖木旁边，分边有一扇可以开关的小门，通过门的开合，可以保护在战车旁作战的我方士兵。在要扩大阵型时，可以装上车门，把两翼展开，来阻挡敌军的子弹和箭。在近距离血战的时候，可以把门摘下，把两翼收回，方便战士的进出。士兵的人数在前面有记录，然后炮车的图纸在《练兵实纪》中也有记录，有时候按照这个形式来执行也不错。”

此处的战车构造为，在左右均围有抵挡敌人攻击的防牌，以及安装了枪，还有在扩大阵型的时候，可以把门展开，用防牌阻挡敌人的攻击。在横木上，凿有6个孔，可以装备刀枪，后侧的横木上，凿有3个孔，可以放置枪和炮。

正如前面提到过的一样，如果敌军靠近的话，士兵们会靠近战车，使用鸟枪和佛狼机一起进行射击，继续向敌军挺进，攻击敌军。即，把战车布局在阵的外面，射击火炮，从而削弱敌人的势力，使用刀枪阻止敌人的突击，进行近距离的交战。

在内部布局骑兵，可以对敌人发起突击进攻。虽然基本的体裁参考了戚继光的作品《练兵实纪》的相关内容，但是这部作品的内容充分考虑了17世纪上旬，朝鲜受到北方女真威胁这一背景，所以独具特色。



虽然《练兵指南》中提出的使用战车的战术，最终没有被采纳，但是在朝鲜后期，为了应对大清帝国的威胁，还是研发出了使用战车或火车的战术。尽管这部作品在那一时期并没有广为人知，但是在丙子胡乱之后，为了应对来自实力出众的骑兵的挑战，使用战车或火车的战术被公认为是有效的。

肃宗即位之前，1673年，吴三桂等三个藩镇王发起三藩之乱，意图反清，而在朝鲜南人的领袖尹鐸等人趁机发动北伐。尹鐸提出了以下这种战车射击结构，把防牌立在车的周围，里面装有兵器，然后通过位于前后的士兵拉车和推车。

和尹鐸不同，领议政许积等人主张应该要先制作可以装备大量的鸟枪或小型武器的火车。1679年，肃宗5年，在汉江边鹭梁开展的大规模军师训练阅武中，有数十辆的火车登场，而且有专属的布阵，还有射击示范。当时的鹭梁，并不是现在我们说的鹭梁津一带，在鹭梁对面的沙滩应该是现在的龙山区二村洞一带。

对于战车和火车，以及相关的战术的讨论，一直持续到了18世纪。例如，在1710年上疏的内容中提到，有宽度为4尺5寸，可以容纳三个人的战车，也有长度为15尺，划分为6个区域，可以容纳14人的大型独轮战车。在这种战车中，装备有大型机械弓“弩”和火炮，有皮革覆盖顶部，可以抵挡箭的攻击。

后来，不仅关于战车和火车的讨论也一直在持续，而且在禁卫营等中央的多个军营和多个地方都开始制作。并且，在18世纪下旬，正祖时期出版的，统一了朝鲜后期战术的，御定兵书作品《兵学通》中，记录了装备有火炮的炮车，及其使用方式。

根据19世纪初期出版的《万机要览》中记录的内容，当时位于汉城的三个军营中都有战车，其中，训练都监有121辆的火车，禁卫营有56辆火车，御营厅有51辆战车。而且御营厅拥有的战车不止一种，不仅有5辆五轮战车，还有20辆两轮战车和26辆独轮战车等多种类型的战车。

虽然《练兵指南》没有成为朝鲜社会的主流兵书，但是在朝鲜后期，对于使用战车等车辆的战术讨论，是以此为原型进行的，而且也进行了多次的实践。由此可见，《练兵指南》这部作品对于朝鲜后期军事史的发展，发挥了比想象中更大的作用。

这节课，我们学习了关于战车的形态的内容。下节课，我们将学习关于朝鲜后期的军用信号的内容。



6-5 朝鲜后期的军用信号

上节课，我们基于实际的资料内容，学习了《练兵指南》的主要内容。这节课，我们将学习课程最后一部分的内容，就是在《练兵指南》中经常会提到的军用旗帜，我们在这节课会对此进行简单地介绍。

在引用的文段中，就曾多次出现了旗帜，当时使用旗帜和各种乐器的组合，来通报军队面临的各种各样的情况。

虽然对于朝鲜后期在军队中使用的乐器，之前在国乐相关的内容中多少有整理提及过，但是对于朝鲜时代军用旗帜，一直没有进行相关内容的整理。对于一些班列图中出现的旗帜，大部分也只是做了简单的介绍。甚至都没有提及旗帜的种类，作用或体系等内容。

在这种背景下，2010年中旬，在日本的大阪图书馆发现了《旗制》这部作品，在作品中记录了关于朝鲜后期使用的各种军用旗帜和内容。高丽大学民族文化研究院对这本书进行了影印，在民族文化研究院的主页有这部作品的介绍，大家对于朝鲜后期的军用旗帜的关注度有所提升。

使用军用旗帜和军乐器来传递信号，这和16世纪以后的战争形态变化有着密不可分的关系。16世纪下旬，发生了壬辰倭乱，参战的主要国家全部都是使用火药武器，武器的威力也有所提升。所以使用的火药数量急剧地增加。

随着火药武器的全面普及，战争中会产生大量的噪音，和之前不可同日而语。所以，在战争中无可避免地需要大量使用“旗帜”作为视觉信号的传递方式。所以，朝鲜后期有十多种的旗帜被运用在部队指挥中，例如，像“认旗”这种部队旗帜，阵法旗帜，信号旗帜，还有其他旗帜等等。

“认旗”这种部队旗帜，会根据五行将每个方位都赋予一个颜色，中央是黄色，前面是红色，左面是蓝色，右面是白色，后面是黑色。例如，身为前营将领的前营将的认旗是以红色为底色，周围带有蓝色。

接下来是信号旗帜，五方旗和高招旗都是具有代表性的信号旗帜。五方旗的尺寸较大，也有别被称为“大旗”。五方旗四边都是5尺长，中间有龙和老虎的图案。底色是相应方位的颜色，在旗帜的边缘有与底色相生的五行之色。



一般会根据中央的图案来命名，有青龙旗，朱雀旗，白虎旗，玄武旗，螭蛇旗等等。高招旗一般和五方旗一起使用，是为了指引相应方位的部队进行移动的旗帜，它的长度为12尺，是一种长旗，颜色根据对应的方位而定。在使用方面，如果一起摇动相应方位的五方旗和高招旗的话，那么所有方位的部队都会跟随这一信号行动。

除此之外，还有几个旗帜是在执行附加任务时需要用到的，像塘报旗，令旗等等。塘报旗是先前进攻的敌后兵塘报军使用的旗帜，边长为1尺，挂有大小为9尺的枪，旗帜的颜色为黄色。令旗是在接收命令的时候，一定会用到的小型旗帜，进入阵营的时候必须使用。

阵法旗帜，主要用于布局正方形阵型的时候，用来确定方阵的大小和门的位置。门旗和角旗是具有代表性的阵法旗帜。门旗是指各方位中间有门的时候，在门左右侧使用的旗帜，朝鲜时代各军营的方阵，在外垒的各个方位都会有一扇门，还有子壁上也需要有一扇门。

所以一般都会准备10面门旗，门旗的样式一般都是旗长为5尺，旗杆长为12尺。中间有带有翅膀的老虎，也就是所谓的“翼虎”，然后底色根据方位而定。

例如，设立在中央子壁的门旗就是代表中央的黄色，在资料中也被称为“黄旗”。角旗是在设置方阵的外垒时，在各个角上设立的旗帜，例如设立在东南角的角旗，在南边被称为南东角旗，在东边被称为东南角旗。

角旗的样式为，四边长4尺，旗杆长12尺，像南东角旗，在上方使用象征南面的红色，在下方使用象征东面的蓝色。而东南角旗的样式则与之相反。例如，在与敌人战斗之后，为了设置方营，在符合设置阵的四方军门标准的点上，插上各种旗帜，这个做法是为了便于士兵的部署。

在《兵学通》或《练兵指南》的“五方旗招先出立表图”中，都能很好地体现这一内容。由此可见，五方旗是在布局方阵的外垒的各方位中间插的旗帜，而高招旗则是在方阵里面的子壁的各方位中间插的旗帜，通过此方法来布阵。

旗帜信号还包括了行军的信号，对于在资料中出现的需要根据旗帜信号行动的相关内容，我整理成了表格，如下表所示。



一般击鼓表示移动，用于信号传递的击鼓方法有以下几个。缓慢地击鼓，也被称为点鼓，鼓声每响1次移动20步，约合25m。相较于点鼓，敲击速度更快一些的击鼓方式，被称为紧鼓，鼓声每响1次移动1步，约合1.2m。

非常快地击鼓，也被称为擂鼓，意为前进战斗。

前方有敌军靠近战车的话，各兵种们以战车为中心进行战斗的场面，在作品中都有所描写。在发射号炮后击鼓，蓝色，红色和白色三面大旗，即五方旗点向三个方面，即在指向地面，在碰到地面之前重新举起旗帜，战车，骑兵和步兵三个兵种的将领给予响应，所有人都不断地回应信号。

非常快地击鼓，也就是所谓的“擂鼓”后，响起天鹅声的喇叭，代表攻击敌军。如上所示，朝鲜后期的信号体系设计得十分精细缜密，可以有效地应对战场上的混乱局面。

大家应该在欧美的战争电影中，看到过这样的战争场面，就是使用各种各样的旗帜和乐器，来指挥士兵移动。反而在韩国的电影中好像几乎没有出现过这种场面。

尽管在历史还原度上没有那么高，但韩国电影还是通过其擅长的叙事方法，使用精彩故事情节弥补了这些缺点。但是，韩国战争题材的电影相较于其他题材，在国外的影响力较小，这可能也和战争场面还原的准确度有关。希望在韩国的电影中，有朝一日可以看到在主要战争的战斗场面中，看到各种旗帜，听到各种军乐声，从而有效还原战斗场面，使其更具有观赏价值。

这节课，我们学习了《练兵指南》中出现的各兵种和战车相关的主要内容，以及军用旗帜的种类和使用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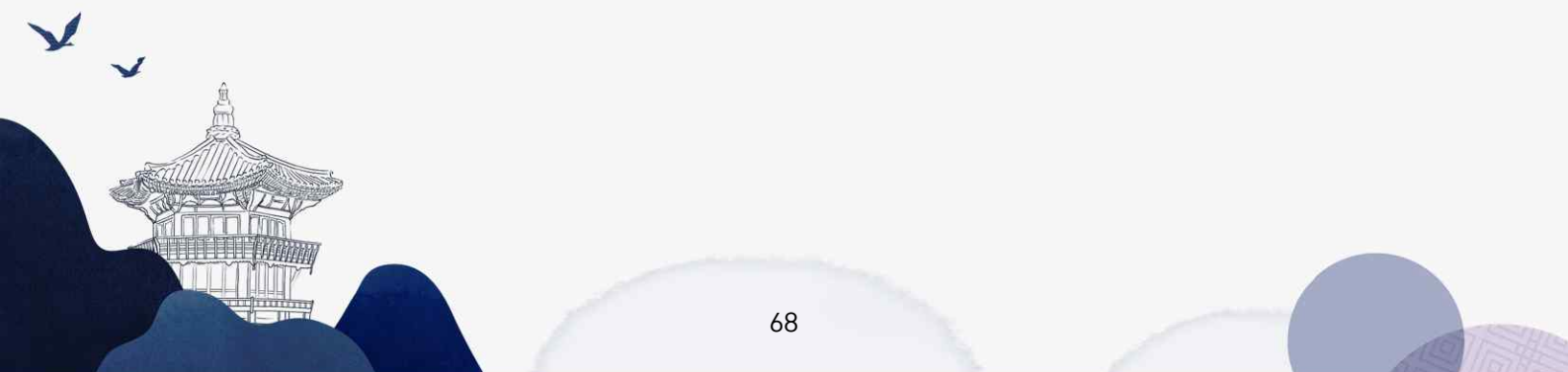
在上节课中，我们整理了《练兵指南》的出版背景和作者韩峤的相关内容，还有关于《练兵指南》的各种内容。大家应该是第一次学习韩国历史上的兵书，兵学以及战术，应该会有很多自己的想法。

因为大家一般都会有偏见，觉得当时朝鲜并没有像样的军队，所以也没有充分地去了解兵学的存在。但是，如果没有一定的军事实力基础的话，也不可能维持500年以上的国家独立。也就是说，仅凭借政治或外交能力，朝鲜王朝是绝不可能存在如此之长的时间。这就意味着当时的朝鲜社会具备了一定的军事力量和经济实力来支撑其发展。



我们通过这两节课的学习，虽然还没有达到可以充分理解相关内容的水平，但是相较于之前，我们肯定对相关内容有了更进一步的理解。将来，如果从不同视角审视朝鲜时代，我期待会有更加丰富和多样的理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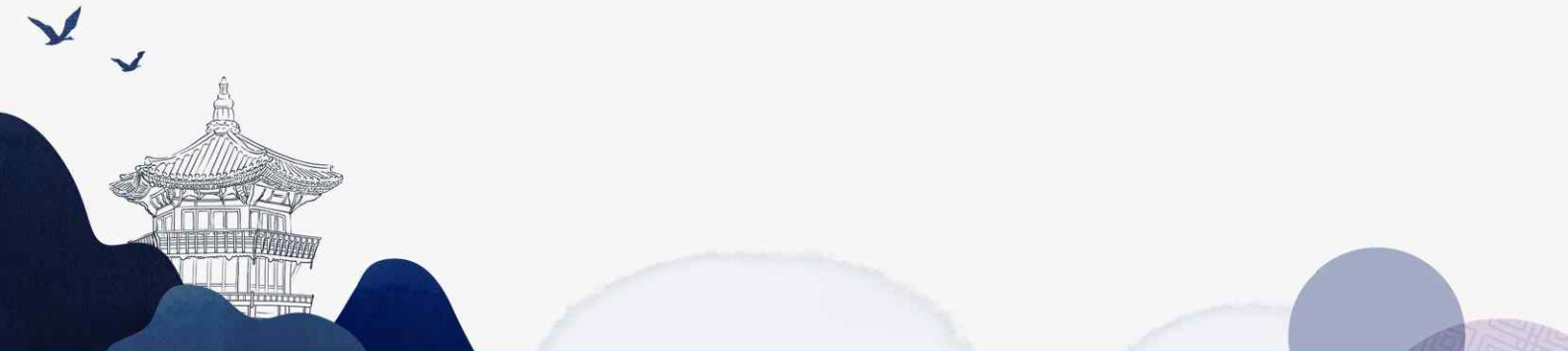
我们关于《练兵指南》的课程内容就到此结束了。我们这两节课学习的内容，在理解上多少会有一些的难度，大家辛苦了。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 「거기보대오규식」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거정(車正)은 전차 1량과 이에 속한 군사들의 지휘관을 의미한다.
- ② 총수대(銃手隊)는 대장(隊長)과 화병(火兵) 각 1명, (조)총수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조총 사격은 총수 5명씩 2개조로 나뉘어 2차로 나뉘어 교대로 연속 사격하였다.
- ③ 근접전을 담당하는 살수대는 대장과 화병 각 1명 외에 등패수 2명, 낭선수 2명, 도곤수 4명, 파수 2명으로 구성된다.
- ④ 궁시를 다루는 궁수대는 적군이 50보 안으로 들어오면 화살을 발사하고 적군이 더 가까이 오면 장도를 들고 살수를 도와 전투한다.

정답 ②

해설 총수대는 조총수 10명이 2명씩 5개조로 나뉘어 5차로 교대로 연속 사격합니다. 이는 『병학지남』과 『병학통』 등 조선후기 군사 훈련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병학지남』 등 절강병법의 일반적인 살수대에 등패수 2명, 낭선수 2명, 장창수 4명, 파수 2명이 편성된 것과 달리 『연병지남』에서는 장창수 4명 대신 기병을 저지하기 편리한 단병기인 협도곤을 든 도곤수 4명을 둔 것이 특징적입니다.

02 다음 중 보병이 기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 칼날을 붙인 짧은 창은 무엇인가?

5분

- ① 장창
- ② 낭선
- ③ 당파
- ④ 협도곤

정답 ④

해설 협도곤은 칼날 길이 5촌, 무게 4냥, 자루의 길이 7척(약 1.4미터) 정도되는 짧은 창으로 운용하기 편리하고 잘 부러지지 않아 기병을 저지하기 용이하였습니다. 협도곤을 장비한 도곤수는 적 기병과 대적할 때 먼저 말을 찰려 기병을 낙마시키고 나서 긴 칼날로 기병을 벨 수 있었으므로 전장에서 유효하였습니다.



03 다음 중 기병인 마병대의 전투 동작이 아닌 것은?

5분

- ① 적이 멀리 있으면 말 위에서 조총과 삼혈총, 화살을 계속하여 사격한다.
- ② 적이 가까이 오면 좌, 우익으로 나뉘어 원앙진 형태로 앞으로 돌격한다.
- ③ 근접전에서는 휴대하고 있는 편곤, 장도, 언월도, 쌍도, 구창 등으로 전투한다.
- ④ 2열 중대인 원앙진 이외에 양의진, 삼재진으로 상황에 따라 진형을 변화시킨다.

정답 ①

해설 마병대의 기병은 적군이 멀리 있으면 말에서 내려 삼혈총이나 활을 쏘고 적이 가까이 오면 말에 올라 좌우익으로 나뉘어 달려 나가며 적과 근접전을 합니다. 조총은 기병이 휴대하기 무겁고 길어서 대신 가볍고 짧은 삼혈총을 기병들이 대신 장비합니다.

04 다음 중 「거기보합조소절목」에서 각 병종들을 통합하여 전투하는 모습 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적군이 우리 진에서 100보 안으로 접근하면 포수들이 나아가 한 줄로 서서 천아성 나팔 신호에 따라 일제히 사격한다.
- ② 조총 사격 후 당파를 든 파수는 불화살인 기화(起火)를 쏘고, 전차에 장치된 대포도 일제히 사격한다.
- ③ 적군이 전차 앞에 도달하면 거병은 전차를 앞으로 밀어 붙이며 보병들은 전차에 붙어 전차를 엄호한다.
- ④ 기병은 좌우로 나뉘어 달려나와 적군을 공격하고, 앞의 복병은 옆에서 돌격하여 적군을 공격한다.

정답 ②

해설 적군이 우리 진 100보 안으로 들어오면 조총을 사격하고 이어 불화살인 기화 및 천아성 나팔 신호에 따라 당파를 든 파수들이 소형 로켓인 화전을 쏘고 전차의 대포도 일제히 사격합니다.



05 다음 중 단위 부대를 표시하는 깃발로 가운데 해당 방위의 색깔을 넣도록 하고 주위에 청색을 띠는 깃발의 이름은 무엇인가?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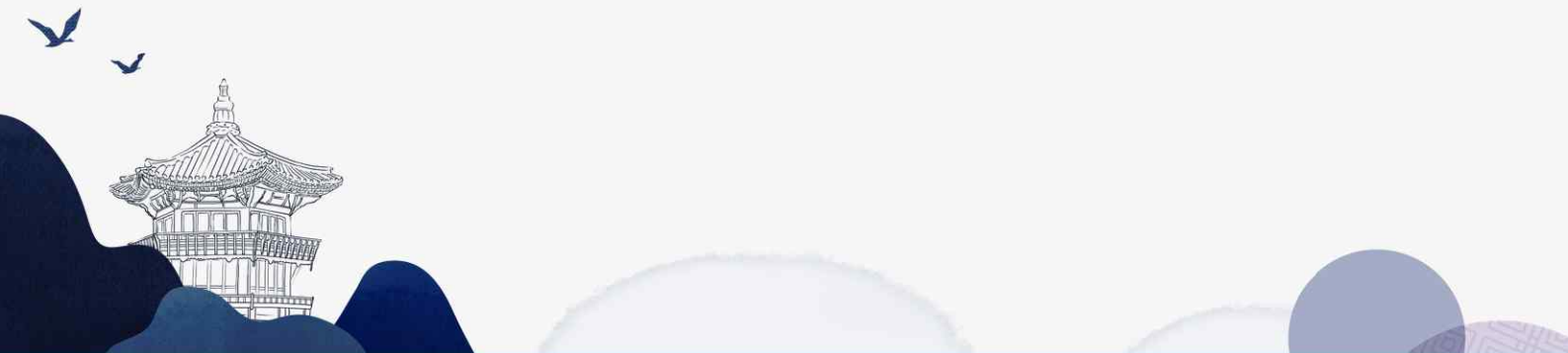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정답 인기(認旗)

해설 조선후기 군사용 깃발은 부대단위 깃발, 진법용 깃발, 신호용 깃발, 기타 깃발 등 10여종의 깃발이 있고 이를 활용하여 부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하였습니다. 인기는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로 해당 부대의 앞에서 행렬을 선도합니다. 그 형태는 사각형으로 부대 규모에 따라 크기가 달랐습니다. 깃발의 가운데에는 해당 방위 색깔을 넣는데, 오행에 따라 중앙은 황색, 앞은 홍색, 좌는 남색, 우는 백색, 후는 흑색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영(前營)의 지휘관인 전영장의 인기는 홍색 바탕에 주위에 청색을 띠입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주제

『연병지남』의 내용을 통해 북방의 여진 기병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7세기 초 조선은 전차 및 기병과 다양한 보병을 통합 운용하는 전술을 고안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조선은 『병학지남』, 『무예제보』, 『무예제보번역속집』 등 여러 병서를 편찬하여 일본과 여진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조선에 대한 이미지는 문치의 국가라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군대도 존재하지 않았고 전술도 개발되지 않았으리라는 선입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500년이라는 기간 중 조선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나 외교의 능력 이외에 상당한 군사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역량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이 장기간 존속하며 번영할 수 있었던 원천은 군사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해보자. (6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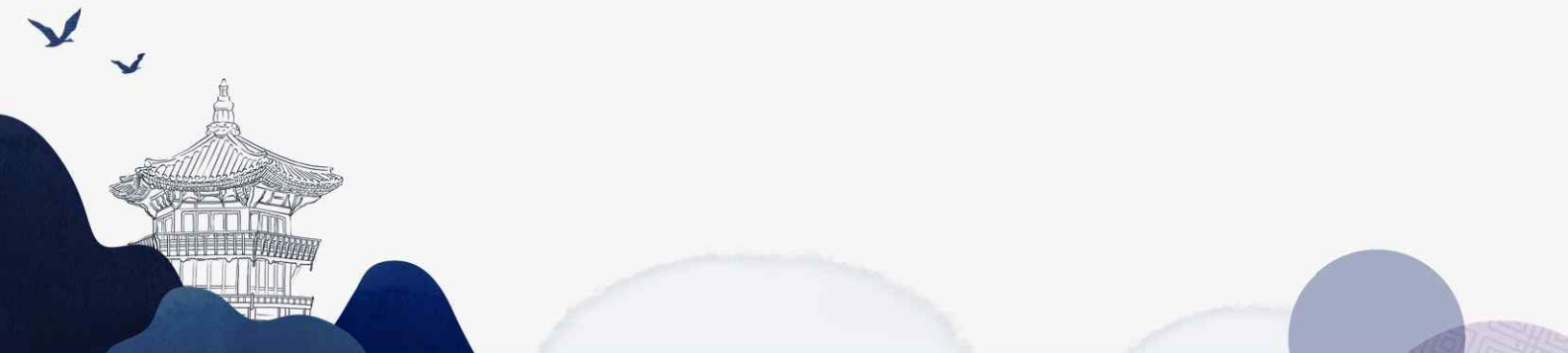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참고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대규모 공격에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였으나 곧바로 군사의 대규모 동원과 향촌 사회의 의병 조직을 통해 일본군의 추가 진격을 저지하는 등 상당한 내구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명과의 외교를 통해 원병을 얻고 명의 전술 및 무기 등을 도입하여 조선의 군사제도를 급격히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17세기 여진의 위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병지남』 등 각종 병서의 간행과 조총과 화포의 개발 및 제작 등 기술 개발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군사비의 조달을 위한 재정 개혁과 사회 안정책이 이루어졌는데 광해군 시대 경기도를 시작으로 17세기 전국으로 확대된 새로운 조세 개편인 대동법의 실시 등과 향촌 사회의 사족들에 의한 전쟁 복구 노력 등이 그것입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조선후기의 전술-『병학통』을 중심으로-, 노영구 저, 그물, 2016

3장(김태웅, 일제강점기의 규장각)과 4장(강문식, 광복 이후 현재까지 규장각의 변화와 발전)은 현재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헌이 갖추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였으므로, 본 강의에서 다룬 고문헌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선후기 기병전술과 마상무예, 최형국 저, 해안, 2013

8편의 논문 가운데 마지막에 수록된 정병설 교수의 <‘도서관부’를 통해 본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한국고서 수집>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고문헌 수집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한양을 지켜라(On Guard in Hanyang), 서울역사박물관, 특별전 도록, 2020

위 도록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museum.seoul.go.kr/www/board/NR_boardView.do?sso=ok

웹사이트 자료

- 노대환, 18세기 동아시아의 백과전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규장각칼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kyudb.snu.ac.kr/contents/content_detail.do?CSRFTOKEN=20a321c9-9e67-484d-88d1-1117f5e2654b&code=C00030&a_code=A03&b_code=B01&c_code=C03&num=30&now_tab=3&sort=rec